



우수콘텐츠잡지
2023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3·5
VOL.215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예술회관 기획 _ 문화가 있는 날

예감

— ;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2 0 2 3 년

3 월 ~ 1 1 월

부 산 예 술 회 관

공 연 장 · 전 시 장

3. 29.(*)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 해설과 함께하는 세계 명가곡 축제

4. 26.(*) 예술단체 백의(百意) - 백의민족 묘기(卯氣)

5. 31.(*) 국악그룹 헤이븐 - 첼로와 피아노로 함께 듣는 판소리

6. 28.(*) 드 콤마 - 클래식이랑 한바탕 놀아보까?

7. 26.(*) TDC양상철 - 움직이는 글: '실내악으로 만나는 문학 작품'

8. 30.(*) 극단세진 - 지니스토리 플러스

9. 18.(월) - 9. 24.(월) 부산공예예술협회 - 공예에 취(就)하다展

9. 20.(*) 이음전통춤연구회 -戀書

10. 25.(*) 젊은예술 날라리와 정이 - 토션섬, 행차하신다

11. 27.(월) - 12. 3.(월) 주식회사 틀라웨이브 - 디스트릭트 7展

11. 29.(*) 정·홍·동 국악예술단 - 이야기가 있는 가마금병창 '얼쑤! 한바탕 놀아보세'

MAY

5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웰빙댄스 10시-11시 30분(4층연습실)	2 김정현의 평방노래교실 13시 30분-15시 30분(공연장) 가곡교실 10시-12시(2층연습실)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3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 30분(2층연습실)	4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스마트폰사진교실 10시-11시 50분(4층회의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 50분(4층연습실) 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강좌 오후 7시, 051)632-5888	5	6 태극엔터테인먼트, 보헤미안 가수 인혁의 전국콘서트, 오후 14시-20시, 010-2166-2468
7	8 웰빙댄스 10시-11시 30분(4층연습실)	9 김태희 개인전, Artificial Nail Art 010-4542-5322 김정현의 평방노래교실 13시 30분-15시 30분(공연장) 가곡교실 10시-12시(2층연습실)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10 김태희 개인전, Artificial Nail Art 010-4542-5322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 30분(2층연습실) 사)한국다문화예술원, 제12회 대한민국 다문화예술 대상 시상식 오전 10시, 010-8921-5588	11 김태희 개인전, Artificial Nail Art 010-4542-5322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스마트폰사진교실 10시-11시 50분(4층회의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 50분(4층연습실) 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강좌 오후 7시, 051)632-5888	12 김태희 개인전, Artificial Nail Art 010-4542-5322	13 청소년건축상상마당 오전 9시, 051)241-4011 김태희 개인전, Artificial Nail Art 010-4542-5322
14	15 웰빙댄스 10시-11시 30분(4층연습실)	16 김미현 개인전_태동숙 개인전 010-5218-0087 김정현의 평방노래교실 13시 30분-15시 30분(공연장) 가곡교실 10시-12시(2층연습실)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17 김미현 개인전_태동숙 개인전 010-5218-0087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 30분(2층연습실)	18 김미현 개인전_태동숙 개인전 010-5218-0087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스마트폰사진교실 10시-11시 50분(4층회의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 50분(4층연습실) 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강좌 오후 7시, 051)632-5888	19 부산연극제-폐막식, 오후 7시, 051)645-3759	20 청소년 시낭송대회 오후 2시, 051)632-5888 청소년, 영상으로 소통하다 051)628-4371 청소년꽃다발만들기대회 오후 1시, 051)612-2604
21 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오전 9시, 051)644-5211	22 청소년그림공모전 051)632-2400 웰빙댄스 10시-11시 30분(4층연습실)	23 청소년그림공모전 051)632-2400 김정현의 평방노래교실 13시 30분-15시 30분(공연장) 가곡교실 10시-12시(2층연습실)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24 청소년그림공모전 051)632-2400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 30분(2층연습실)	25 청소년그림공모전 051)632-2400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스마트폰사진교실 10시-11시 50분(4층회의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 50분(4층연습실) 청소년도체험 오후 1시, 051)806-1551 전문예술단체 음악공연, 피플콘서트 - 심령을 치매-이것이 오 부리다. 오후 7시, 051)897-5005 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강좌 오후 7시, 051)632-5888	26 청소년그림공모전 051)632-2400	27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오후 3시, 051)646-7343 청소년그림공모전 051)632-2400
28 위트피아노 선포집, 오후 3시, 010-7105-5505	29 제3회 이영희 아트헤어 컬러 테라피작품전, 010-3571-5598	30 제3회 이영희 아트헤어 컬러 테라피작품전, 010-3571-5598	31 제3회 이영희 아트헤어 컬러 테라피작품전, 010-3571-5598 문화가있는날, 국악그룹 헤이브, _첼로와 피아노로 함께 듣는 핀소리, 오후 7시 30분, 051)631-1377			



ART BUSAN MONTHLY VOL.215

2023 MAY 5

CONTENTS

권두칼럼

06 현대인을 위한 예술과 교육 _ 박동순

예서제서

08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해설과 함께하는 세계 명가곡 축제 _ 정지영

10 부산예총_제37회 부산청소년예술제

14 부산문인협회 봄 문학기행 _ 정희경

18 부산음악협회_2023부산음악대축제, 신인음악회 _ 정지영

20 부산현대미술관_2023 부산모카 시네미디어

22 제16회 부산국제즉흥춤축제 _ 함수경

26 제18회 한국서각협회 부산지회전

28 길동인 60주년 기획전 - 길동인의 부리를 찾아서

31 제2회 부산문인의 날

32 금정문화회관 다섯 번째 계절_낫선 행성, U+1F728

34 Art Space & Gallery - J. Movement _ 이효민

36 향성전香齋展

38 Photo Club 빛따라 길따라 '19인 19色'

40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부산 현지실사 들여다보기 _ 이효민



소요유(逍遙遊) _ 아크릴, 혼합재료, 73*61cm, 2022

표지_ 정광화

개인전 14회, 2인전 3회, 단체전 9회

제16회 송해수 미술상,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특별공로상 수상

부산미술협회 부이사장, 대한민국 미술대전, 부산미술대전 등 심사위원,

부산광역시 조형물 심의위원, 부산시립미술관 작품 구입 심의위원 역임



포토에세이

44 아름다운 5월, 위양지에서 이팝나무 꽃을 만나다. _ 김나영

열린마당

48 주례동 하늘미릿길 골목 _ 김정화

인물포커스

52 조각가 전준석 _ 이효민

예인탐방

54 화가 김응기 _ 이효민

예술가열전 208

56 연극배우故 이정허 _ 김문홍

손으로 쓴 문학

60 벚꽃의 이름으로 _ 서문희

들어다보기

62 무용/ 부산시티발레단 <돈키호테> _ 노영재

64 미술/ 변대용 작가 <Slow Life-달빛 산책> _ 권오혁

66 연극/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 _ 김민수

68 연극/ 제41회 부산연극제 개막작 <1945> _ 김남석

기획연재

72 建築正記Ⅴ - 미래 부산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안 _ 이상준

76 음악으로 본 세상 이야기Ⅱ - 오페라, 사람들의 이야기 _ 정두환

80 예총·전시·공연 뉴스

86 신간 안내

90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3년 5월 동권 215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라-01255)

발행일_ 2023년 4월 24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이봉두(건축가회), 김인숙(국악협회), 김갑용(무용협회), 이석래(문인협회), 박태원(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서영조(영화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장_ 정지영 편집기자_ 이효민 디자인_ 두손کم 제호_ 김중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예술과 교육

글 _ 박동순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장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는 어디일까. 고구려 소수림왕 때인 372년 세워진 ‘태학’을 기록상 가장 오래된 학교 교육기관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귀족적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한 태학과 당시 병존한 최초의 민간 교육기관인 ‘경당’, 이 두 곳이 공통적으로 가르친 것이 바로 『시경』(중국 은나라에서 춘추시대까지의 시집)이다. 고구려만이 아닌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도 『시경』을 통해 문학과 음악이 결합한 형태의 예술 교육을 시행했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이러한 예술 교육의 주된 이유는 예술을 통한 인격 함양이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와 광복 등 근대사의 격변기를 지나며 당장의 필요를 이유로 예술 영역 교육은 소홀해졌고, 교육 방법의 발전 속에서도 아직은 다양한 예술 장르를 다루거나 폭넓게 교육되지는 못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

현대에 이르러 사회 환경이 급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변화의 물결에서 자유로운 분야가 어디 있었겠나만은, 어찌

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야 중 하나가 교육계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변화의 적극적인 수용이 요구되는 측면도 있었을 테다. 문제는 그로 인한 부정적 요인들이다.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와 같은 학자는 사회진화론을 주창했지만, 급격한 변화가 현대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가져왔음은 분명하다. 정보의 폭증은 상대적 박탈감을, 경쟁의 심화는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가져오며 신체적 밸런스 또한 무너지는 식이다. 나는 교육자로서 ‘사회’를 학생들이 헤쳐 나아갈 일종의 ‘바다’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사회문제 또한 심각하게 생각한다. 학교 폭력, 성적 비판 등 일련의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그간 교육 격차 해소, 인격 함양, 인재 배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변화해왔지만, 대두되고 있는 교육계의 위기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실 언론매체에서도 많이

다루어진 바 있고 일선에 있는 교육자 또는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공감할 내용이기 한데 이는 하나의 요인 탓이라기보다 전 세계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비롯한 일자리 문제, 교육 환경 지형의 문제 등 복합적 요인에 근원함을 밝혀준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농촌학교는 소멸 위기이고 지방대학의 존폐를 거론할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 양극화는 심각해졌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잃어버린 3년'은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야 할 학생들에게 정서적 결핍과 인간관계의 부재를 안겼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들의 정서를 되돌리고 치유해야 하며, 교육과정에서도 학업 성과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 이때 방법적인 면에서 '예술적 교육'이 필요하리라 보는 것이다.

우리 동서대학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해 인성교육을 중요시한다. 특히 특성화, 정보화, 세계화 3대 전략을 기반으로 영화 영상, IT, 디자인,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는 자타 공인 최고의 대학이 되었다. 2021년 세계여성총장회의 라틴아메리카 지역포럼에 초청 강연자로 온라인 참석했을 때 역시, 디자인 대학의 글로벌 디자인 프로그램들의 성과와 국제화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일관성 있는 특성화 전략의 효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성과들 또한 단순히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한 전략 모색의 결과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교육철학'이라는 핵심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어야 좋은 결과가 온다는 말이다.

허허벌판에서 시작한 우리 학교의 캠퍼스처럼 교육은 '똑같은 백지를 지닌 한 인간'에게 아름다운 색깔을 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밝힌 것과 같이 현대

를 살아가는 학생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예술 교육이라 말하고 싶다. 예술 교육은 크게 예술 감상을 위한 것, 예술적 표현을 위한 작품 창조를 위한 것, 악기연주가창·그림 그리기 등 기계적인 예술 활동을 위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아울러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치 과거의 국가들이 그러했듯 예술 교육을 통해 정서와 감성을 계발하고 바람직한 인격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정신적인 영역에 미치는 예술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는 한편, 예술 교육이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이성적인 지식과 더불어 그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감성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게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술과 교육, 두 가지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다. 예술의 효용성과 같이 이제라도 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음악이나 미술을 가르칠 때만이 아닌,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단순 지식 전달을 뛰어넘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교수법의 방법으로서 아이즈너(Elliott Eisner, 1933~2014)가 교사를 다양한 시각적 표현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예술가로 지칭하듯이 말이다. 예술 감상을 위한 풍요로운 정서, 창작을 할 수 있는 남다른 시선과 창의력, 생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취미로서의 예술 활동. 다가오는 미래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할 3가지가 사회 전반에 자연스레 자리 잡기를 바란다.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해설과 함께하는 세계 명가곡 축제

봄이 왔고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의 호흡은 한결 편해졌다. 꽃이 핀 길을 따라 사람들의 발길도 분주해진 이즈음,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도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들의 웃음꽃 이야기꽃이 넘쳐났다.

프랑스어로 '친구, 우정'을 뜻하는 [아미티에 성악연구회]는 '해설과 함께하는 세계 명가곡 축제'로 문화가 있는 날에서 지역민들과 마주했다. [아미티에 성악연구회]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럽 각국에서 공부한 성악가

들이 주축이 된 단체다. 1987년 창단해 '프랑스 가곡연구회 밤' 오페라 <라미코 프리츠> <춘향전> 등을 무대에서 선보이며 클래식 음악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이날 무대에 선 강도호 김현성 서훈하(이상 테너) 이기백 양종근(이상 베이스 바리톤) 이태영 오세민(이상 바리톤) 강수진 양근화 박민영 이수진 박소영 양성희(이상 소프라노)는 이현주 권수빈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한국 가곡과 해외 유명 가곡을 연주했다. 해설자로 나선 김은경은 연주에 앞서 각 노래에 담긴 의미



를 포함한 곡 설명으로 원어로 듣는 세계 가곡 감상이 어렵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Spring waters(봄의 만수)」 「Il bacio(입맞춤)」 「The song of the flea(벼룩의 노래)」 「Odin's meeres Ritt(바다를 건너는 오딘)」와 한국가곡 「벚노래」 「고풍의상」 「그리운 마음」 등 시와 문학 작품에 선율을 더한 26곡의 가곡으로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특히 베이스 바리톤 양종근은 안 프렌켈의 「Zhuravil(백학)」으로 큰 호응을 얻어냈다. 「Zhuravil(백학)」은 전쟁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병사들의 영혼을 하늘을 나는 학에 비유해 표현한 곡이다. 가사에 담긴 세심한 뜻을 몰라도 상관없었다. 곡이 지닌 장중함과 엄숙함은 양종근의 연주를 통해 고스란히 객석으로 전해

지며 관객의 몰입을 이끌었다. 테너 서훈하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옛 도시 그라나다의 풍물과 춤추는 아가씨의 모습을 담은 무곡 「Gronada(그라나다)」로 조금은 지루할 뻔했던 연주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또, 「벚노래」 「동심초」 「고풍의상」과 같은 귀에 익은 가곡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마중」 「나 하나 꽃 피어」 「첫사랑」 등 현대적인 멜로디에 서정적인 가사들을 음미하게 하는 창작곡들은 마음속으로 따라 불러볼 수 있어 낭만적 분위기에 취하게 했다.

하지만, 13명의 성악가가 각 2곡씩, 피아노 반주로만 2시간 가까이 연주를 한 터에 조금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다. 많은 연주회에서 마지막은 늘 '암묵적' 앙코르를 요청하기 마련인데, 마지막 연주가 끝났음에도 객석은 무반응이었다. 전 출연진이 나와 「푸니쿨리 푸니쿨라」와 「오 솔레미오」를 불렀을 때 관객들은 의외로 앙코르를 외쳤다. 독창도 좋았지만 합창으로 듣는 가곡은 그 느낌이 사뭇 달랐다. 출연진을 조금 줄이더라도 듀엣이나 증창이 있었다면, '해설과 함께하는' 공연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준비해온 대본을 읽지만 말고 관객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듯 해설을 들려주었다면 객석은 끝까지 집중했을 것이다. 전 출연진이 함께 앙코르곡을 부르자 관객들이 '찐마음'으로 앙코르를 요청하는 걸 보면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음을 확인했기에 하는 말이다. 프로그램 사이사이 분위기를 환기시켜 줄 포인트의 부재가 아쉬움을 남겼지만, 서둘러 지나가는 봄밤에 꽃과 음악으로 취하게 해준 연주회였다.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5월 공연은 [국악그룹 헤이브]의 '첼로와 피아노로 함께 듣는 판소리'다. 현재 다섯 바탕이 전해지는 판소리 중 <춘향가> <심청가>의 주인공 춘향이와 심청의 삶을 판소리, 첼로, 피아노로 들려준다.

문의_051)631-1377 / 정지영

제37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2023. 5. 13. ~ 27.

부산예술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예술제인 부산청소년예술제가 5월 13일부터 27일 까지 부산예술회관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선의의 경쟁,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예술체험 활동의 장을 펼쳐주는 부산청소년예술제는 올해 37회를 맞았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운수),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가 공동 주최하고 단위협회에서 행사를 주관한다.

청소년건축상상마당

5. 13.(토) 오전 9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회의실

_부산건축가회(회장 이봉두) 051)244-4011

차세대 건축 꿈나무들이 건축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넓히고 건축 크리에이터로서 창의력과 감수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Saveing Earth 생존프로젝트'를 주제로 건축사사무소 GEM의 최준석 소장의 특강을 듣고 '건축상상모형'을 만든 후 심사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한다. 수상자에게는 부산광역시장상과 부산시 교육감상 등이 수여된다.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5. 21.(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_부산국악협회(회장 김인숙) 051)644-5211

선조들의 뛰어난 예술혼과 정서가 담긴 전통음악의 멋에 흠뻑 빠진 청소년들이 기량을 겨뤄보는 무대다. 참가를 희망하는 전국의 초중고 재학생들은 개인이나 단체로 누



청소년건축상상마당



부산예술고등학교 <춤 놀음.있다>

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5월 17일까지 busangugak1961@naver.com으로 신청하면 된다. 종합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청소년무용예술제

5. 19.(금)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_부산무용협회(회장 김갑용) 051)632-5116

무용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멋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부산예술고등학교 <Burning youth>(현대무용, 안무 송미란) 바카노바무용학원 <렛츠고! 마이 라이프!>(사회무용, 안무 문자영) 부산시티주니어발레단 <Bolero>(발레, 안무 명상이) 부산예술고등학교 <춤 놀음. 있다>(한국무용, 안무 이은영) 등 9개 단체가 출연해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사회무용까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청소년시낭송대회

5. 20.(토)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_부산문인협회(회장 이석래) 051)632-5888

한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지탱하고 존속시키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언어이며, 모국어를 사용할 때 가장 창조적인 사고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시낭송대회는 시를 암송하며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되새기고 고운 심성과 예절을 키워가도록 안내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선택해 혼자 또는 친구와 암송하며 감동과 공감을 경험해 본다.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면 참가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가린다. 관람하는 모두에게 낭송시로 엮은 작품집도 무료로 나눠준다.



학생그림공모전

5. 22.(월) ~ 27.(토)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_부산미술협회(회장 박태원) 051)645-3900

미술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풍부한 감성 표현과 예술적 재능을 계발하고자 개최한다. 5월 12일까지 접수된 수채화, 한국화, 파스텔화, 판화, 이미지디자인, 서예, 문인화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해 수상작을 전시한다.

학생사진공모전

5. 24.(수) ~ 27.(토)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_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 051)631-4111

청소년들이 사진이라는 예술 장르를 통해 창의력을 계발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장려한다.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미발표작이면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친 수상작을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부산푸른새싹공연예술축제 'Dream Concert'

5. 13.(토) ~ 14.(일) 오후 1시 부산예술회관 광장-전시장

_부산연극협회(회장 이정남) 051)645-3759

공연예술 분야에 흥미와 재능을 지닌 청소년들의 진로를 계

발하고 예술체험의 기회를 선사할 부산푸른새싹공연예술 축제 'Dream Concert'와 '푸른 새싹 연극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Dream Concert에서는 연기, 뮤지컬, 댄스 등 장르에 구애없이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해 볼 수 있고 연극(메아리) 관람도 가능하고, 인형극을 체험해 볼 수도 있다.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5. 27.(토) 오후 3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_부산연예예술인협회(회장 안규성) 051)646-7343

청소년들이 가요와 댄스에 대한 열정과 끼를 발휘하며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그에 준하는 청소년 포함)까지 예선을 통과한 청소년들이 가요와 힙합, 브레이크 댄스 등으로 나눠 자신의 역량을 뽐내는 본선 무대다. 참가 신청은 5월 12일까지 하면 된다.

청소년, 영상으로 소통하다

5. 20.(토) ~ 21.(일) 오전 11시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_부산영화인협회(회장 서영조) 051)628-4371

영상매체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다. 단편시나리오, 동영상과 특별부문으로 5컷 스토리보드로 응모할 수 있다. 단편시나리오는 15분 내외 분량, 동영상은 3분 내외, 5컷 스토리보드는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로 19세까지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협회 네이버 카페에서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메일(moviebs@naver.com)로 작품을 보내면 된다.

부산청소년음악회

5. 19.(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_부산음악협회(회장 권성은) 051)634-1295

클래식 음악가로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이 들려주는 연주회다. 이채민, 안시현, 박세현, 최예나, 류진, 박찬이 등이 나와 프로코피에프의 「플루트 소나타 D장조」 「한범수류 해금산

조 한바탕」로시니의 「아라곤 여인 Aragonese」 등을 들려준다. 또 부산예술고등학교 실내악 팀과 부산공업고등학교 관악팀도 출연해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와 야콥 데한의 「Pasadena」 등을 연주한다.

청소년꽃다발만들기대회

5. 20.(토) 오후 1시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_부산꽃예술작가협회(회장 이미라) 051)612-2604

꽃을 소재로 청소년들의 잠재된 예술적 재능을 계발해주고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초·중·고등학생은 5월 5일까지 신청을 하고, 대회 당일에는 폭 50cm 높이 100cm 내외의 꽃다발을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대상 1명에 부산광역시장상이, 금상 3명에 부산시교육감상(2명)과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1명)이 수여된다.

청소년다도체험

5. 25.(목) 오후 1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_부산차문화진흥원(회장 이미자) 051)809-1551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기다림의 미학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적절한 온도에 맞춰 차를 우려고 다구를 다루는 법인 다도 교육과 찻자리에서 갖추어야 할 예절을 직접 배워보는 다도 체험을 통해 다도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삶의 여유를 배워본다.

제37회 부산청소년예술제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주말에는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지역 중고등학교 예술 관련 동아리도 참여해서 그간 쌓아온 재능을 친구들 앞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대구수목원에서

대구, 문화를 입히다

- 부산문인협회 봄 문학기행

‘능금 꽃 향기로운 내 고향 땅은 / 팔공산 바라보는 해 뜨는 거리 / 그대와 나 여기서 꿈을 꾸었네 / 아름답고 정다운 꿈을 꾸었네’

대구 찬가를 흥얼거리며 광안대교를 달린다.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위한 불꽃 쇼의 흔적은 광안대교 어디에도 없다. 그 화려하던 모습의 뒷정리를 밤새 깨끗이 한 누군가의 수고로움에 감사할 따름이다. 어제 오전에 내린 비로 벚꽃은 다 떨어졌지만 상쾌한 봄날이다. 이른 시간인데도 버스 3대와 130여 명의 부산문인협회 문우들로 예술회관 앞마당은 벌써 설렘이 가득하다.

이번 문학기행은 나에게서는 특별한 여행이다. 올해는 내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보낸 시간과 부산에서 보낸 시간이 똑같은 해이다. 이제부터는 더 부산사람다워지는 시간이다. 이런 시점에 고향 대구로 문학기행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30여 년의 시간 동안 대구는 얼마나 변모했을까? 문인

으로서 대구의 어떤 모습을 담아내야 할까? 생각이 깊어지는 동안 버스는 대구로 달린다.

옛날에는 / 사과라고 하더라. / 사과와 도시, 대구 별명 이 / 이제는 / ‘대프리카’가 되었다. //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 무더운 이유가 / ‘분지’라서 그렇다더라. // 쉽게 말하면, / 동그란 지구 얼굴에 / 대구는 보조개인 거야. // ‘분지’라는 / 빈 화분처럼 움푹한 땅에 / 뭐라도 심어야 안 되겠나? // 달구벌, 대구 화분에 / 달개비꽃 심어 볼래? / 아니면, 망고나무 어때? // 지금은 대구가 너무 더워 / 대프리카라 하니 / 딱이네!

- 김춘남의 동시 “대구” 하면 떠오르는 말, 전문

이번 문학기행 장소는 팔공산과 갯바위로 대표되는 대구의 동쪽이 아니라 서남쪽인 달서구와 달성군이다. ‘대구?’ 하면 떠오르는 말은 ‘무더위’다. “동그란 지구 얼굴”에 “보조개”

인 대구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나무를 많이 심었다. 벚나무와 플라타너스가 도열한 길을 따라 등교하던 시절, 가로수의 변화하는 모습에 계절을 느끼곤 했다.

대구수목원은 대구의 더위를 식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이다. “와, 대구 하면 더운 줄 알았는데 여기는 엄청 상쾌하네” “우리처럼 나무들도 이름표를 다 달았네”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다 못 봐서 아쉬워” “가을에는 어떤 색깔이 되는지 보러와야지”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칭찬에 내 어깨가 으쓱하다. 특히 대구수목원은 대구의 생활 쓰레기 410만 톤을 매립한 장소에 조성된 곳이라 생태 복원에 성공한 사례이다. 부산세계박람회 부주제인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여기서도 본다.

가침박달나무의 흰 꽃 앞에서 박달나무와 무엇이 다른가 토론이 한창이다. 서부해당의 연분홍 꽃이 화사하다. 박태기는 진분홍으로 멀리서도 눈에 확 띈다. 할미꽃, 튜립, 골담초, 제주 수선화 등이 꽃으로 우릴 반기고 소나무, 대나무, 전나무, 무궁화, 목련, 매화나무 등이 숲을 이루고 있다. 선인장 온실, 분재원, 산림문화전시관, 나무를 주제로 한 시비 등도 볼거리를 제공한다.

목화밭에서

“밥도 못 되는 꽃이, 그런데 하는 일이 있네요. 그 꽃이, 그 찬연함이, 얼룩 한 점 없는 환한 긍정이 마른 마음을 축여줍니다. 쓸쓸한 마음을 덥혀줍니다. 사람을 이렇게도 살릴 수 있는 거네요. 뼈와 살이 아니라 마음이 얼어붙고 갈라져 삶이 부러지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걸 꽃이 달래네요. 꽃이 하듯 글이 하면 되겠습니다. 꽃만큼은 찬란하지 못해도, 꽃보다는 또박또박 읽기 쉬운 문장을 지어 누군가를 위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자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농사짓는 기술보다는 문해력과 문장력이 조금 더 나은 듯하므로 그 기술을 이용해 내 쓸모를 다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 최아란의 수필 「글짓기」 부분

수목원을 돌아 나오면서 최아란의 수필 한 구절이 떠오른다. 쓰레기장에서, 꽃과 나무에서, 그리고 글에까지 생각이 꼬리를 문다.

수목원을 찾은 유치원생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우리는 인흥마을에 도착했다. 문익점의 후손인 남평문씨 세거지인 인흥마을은 문익점을 기리는 동상이 우뚝하니 우리를 반긴다. 동상 뒤로는 목화밭이 조성되어 있다. 목화를 거둘 시기가 지났는데도 관광객을 배려한 마음이 보인다. 전통적인 양반



가옥의 틀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라 하지만 담장이 높아 안을 볼 수 없음이 아쉬웠다. 돌아 나오는 길에 붓과 뚜껑, 목화씨의 조형물도 보인다. 요즘은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붓 뚜껑에 숨겨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당시 원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물건은 화약과 지도 같은 것이어서 목화씨를 굳이 몰래 들여올 필요가 없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백제에서 목화를 이용해서 짠 옷감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한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붓뚜껑에 숨겨왔다는 것은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지고 온 지 100년이 지난 뒤, 김평필이 문익점의 공을 기리는 시를 쓴 것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그 후 와전되었다고 한다. 요즘은 어린이들에게 ‘목화씨를 문익점이 들여왔다’라고 가르친다는 김 시인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찌 되었든, 문익점을 내세워 이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대구는 이야기를 혹은 역사적 사실을 문화로 만드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환경에 어떤 문화를 입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대구가 문화를 어떻게 입히는가 하는 것은 사문진나루터의 표지판에서 읽을 수 있었다.

“낙동강과 금호강, 신천, 동화천 등 대구는 강과 하천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물의 도시’이다. 낙동강을 비롯한 대구의 강

과 하천은 문화콘텐츠의 ‘보물창고’가 되고 있고, 관광객을 그리모으는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생태적으로 문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강과 하천을 가진 대구는 축복받은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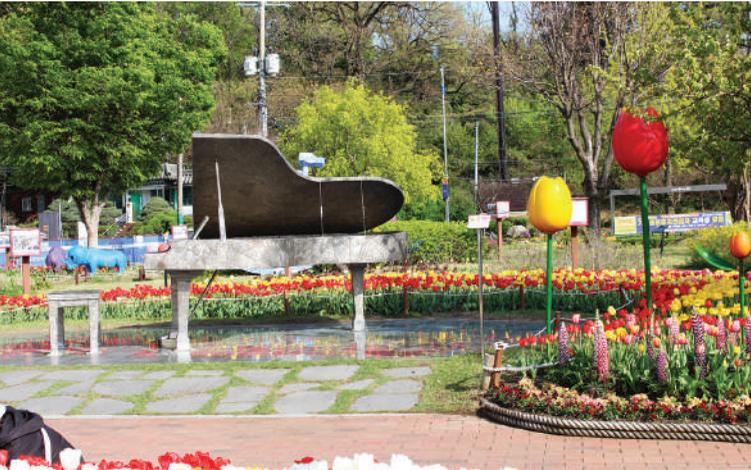
대구가 ‘물의 도시’라니! 물의 도시는 부산이 아닌가? 분지의 이미지에서 ‘물의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온 대구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이 놀랍다.

강정고령보, 사문진나루터, 옥연지를 품은 송해공원 모두 대구가 말하는 ‘물의 도시’와 ‘보물창고’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낙동강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강정고령보에는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옆에 있는 디아크 문화관(The ARC- Architecture of River Culture 및 Artistry of River Culture)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콜럼비아의 하니 라시드(Hani Rashid)가 설계한 디아크는 강 표면을 가로지르는 물수제비,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물고기 모양과 같은 자연의 모습과 한국 도자기 모양의 전통적인 우아함을 함께 표현한 건축물이다. 멀리서 바라보니 고래 같기도 하고 3층 옥상으로 올라가니 강정보가 훤히 보인다. 세계적인 조각가 유영호의 작품으로 평화와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팅맨이 반겨주는 희망나눔존도 특이했고 목공예품을 전시해둔 전시 공간도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많았다.

강문화관(디아크)에서





사문진나루터는 회원유원지에 자리하고 있다. 내 기억 속에 존재하던 회원유원지는 사문진나루터라는 문화의 옷을 입고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사문진나루터는 두 가지의 최초라는 의미를 지닌 곳이다. 하나는 1900년 3월 26일 미국선교사 사이드 보탐 부부에 의해 그 당시 '귀신통'이라 불린 한국 최초의 피아노가 유입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다. 피아노 조형물 여러 개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또 하나는 대구 사과나무 최초 유입지라는 것이다. 1899년 동산의료원 초대 병원장인 미국인 존슨 박사가 미국 미조리주에서 이곳 사문진나루터를 통해 사과나무를 들여와 동산의료원 언덕에 심었다고 한다. 어머니마루에서 씨가 떨어져 자생한 10년생 3세목(손자나무)이 기념식수 되어 많은 꽃을 피우고 있다. 피아노와 잘 어울려 더 화사하다. 주막촌과 그 앞의 500년 된 땡나무도 사문진나루터를 오고 갔을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는 듯하다. 그 이야기가 또 모이면 어떤 문화가 탄생할지 기대된다.

정에 사무치다 사랑이 그리웠어 / 역마살 도졌는가 가는 곳이 무대였어 / 유랑의 강을 건너서 나 여기에서 있네
꿈에도 가고 싶은 대동강을 굽어보며 / 가슴을 후벼파듯 어머니-어머니 / 손잡은 그날의 노래, 남과 북이 울었지

밭길 닿는 족족 웃음 속에 꽃을 심어 / 소리쟁이 가는 곳에 벌과 새 날아왔지 / 나는야 못 말릴 판따라, 눈감아도 땡땡!

- 김덕남의 시조 「판따라, 송해」 전문

옥연지를 품은 송해공원으로 간다. 농업용수를 위한 옥연지를 품은 이곳은 송해의 처가가 있는 곳이다. 넓은 옥연지의 잔잔한 물결에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외치는 송해의 목소리가 넘실거린다. 커다란 물레방아는 악기인 듯 계속 연주를 하고 있다. 문화를 만들기 위해 티끌만 한 인연이라도 끌어오는 대구의 지혜가 보인다.

김광석거리를 만들고 오페라하우스를 짓고 정호승문학관, 한국수필문학관을 만든 대구, 그들은 자연과 이야기가 있는 곳은 어디든 문화를 입히고 있다.

내 청춘이 거기 있고, 부모님이 묻혀 있고, 자매들이 있어 늘 대구로 목을 길게 빼고 있는 나는 거기에 더해 문화에 대한 갈증으로 대구를 다시 본다. 그러나 그 갈증은 이제 몸담고 있는 부산에서 풀어야 하리라. 부산의 따듯한 불빛이 우리를 맞는다.

글사진_정희경 월간 『문학도시』 편집장



2023부산음악대축제, 신인음악회

2023. 4. 2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꽃과 초록으로 가득 채워지는 봄은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작은 움에서 시작한다. 클래식음악연주는 계절과 무관한 듯 하지만 무릇 봄과 어울리는 음악회가 있다. 바로 신인음악회다. 신인음악회는 차세대 클래식 연주자들의 등용문이다. 무대가 스승 일 수밖에 없는 예비 음악가들에게 본격적인 무대를 마련해주고 더 큰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부산음악협회(회장 권성은)는 부산 음악의 내일을 이끌어갈 예비 음악가들을 위해 [부산청년오케스트라] 운영과 함께 매년 신인음악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2023부산음악대축제'의 일환으로 4월 2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신인음악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오디션을 거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

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를 졸업한 10명의 실력과 새내기를 선정했다. 흔히 신인음악회 하면 노련미는 없지만 성실함과 풋풋함이 주는 희망에서 즐거움을 찾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신인음악회 무대에 선 10명의 연주자들은 기성세대 못지않은 기량으로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날 무대에 선 신인들은 IAPMT국제콩쿠르(신지환), 글로빌 전국음악콩쿠르(오시현), 부산국제야티스트 콩쿠르(전한아) 등에서 수상했으며,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신인을 주목하라'(주은혜)와 부산대학교 피아노 정기연주회(정성윤), 인제대학교 정기연주회(맹지운), 월드브릿지(이유진)와 협연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또 실기에서 수석(박지희)으로 졸업한 이도 있다.

신인 음악가들은 발랄함과 개성을 엿볼 수 있는 선곡과 자신감 있는 무대 매너로 MZ세대 답게 이날 연주회를 이끌었다.

신지환은 쇼팽의 피아노 독주곡 중 짧지만 내용이 꽉찬 느낌을 주는 「스케르초 No.3 in c-sharp minor Op.39」을, 주은혜는 드뷔시의 「L'isle Joyeuse, L.106(기쁨의 섬)」을 연주했다. 명지운은 브람스 만년의 작품으로 쓸쓸함과 남성다움, 낭만과 기교, 서사가 있는 발라드곡 「6Klavierstucke(피아노 소곡) Op. 118」을, 오시현은 기교적이며 독창적인 타발리오네의 「라 트라비아타 주제에 의한 환상곡」을, 홍승주는 근대기 우리 음악의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완성된 곡 「고풍의상」과 오페라 <테레지아의 유방> 중 「내 남편이자 주인, 이제 안녕」을 연주했다. 전한아는 러시아 작곡가 스크랴빈의 「피아노 소나타 4번」을, 정성운은 슈만의 이중적 성격을 표현한 「Fantasiestucke Op.12(환상소곡집)」을 선사했다. 이유진은 첼로의 명곡 드보르작의 「첼로협주곡 B단조」을, 박지희는 프랑스의 20세기 작곡가 졸리베의 「리노의 노래」를, 박하민은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중 「나의 은혜로운 저녁별」과 윤학준의 「잔향」으로 신인음악회 무대를 마무리했다.

특히, 짧은 곡이지만 관능적이고 에로틱한 느낌의 스크랴빈 「피아노 소나타 4번」에서 전한아는 피아니스트를 곤란하게 만드는 산만한 왼손의 향연을 잘 소화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했고, 플루티스트 오시현의 연주는 지루할 틈 없이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다양한 전개가 돋보여 눈길이 갔다. 경성대학교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서 주역으로 출연한 바 있는 홍승주의 연주에선 자신감이 느껴졌고, 뉴욕 국제음악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수상한 박하민의 목소리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을 가득 채우면서 관객들에게 그만의 「잔향」을 남겼다.

무엇보다 코로나의 확산기에 실기 수업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부단한 연습과 노력으로 음악에 대한 진심을 보여준 이들 신인 음악가들의 열정에 응원의 박수를 더한다. 공연 중에는 자리 이탈을 삼가달라는 안내 멘트가 무색하게 친구의 연주가 끝났다고 음악회 도중 자리를 뜨는 일부 관객들의 매너에는 눈살이 찌푸려졌지만, 그럼에도 뜻뜻함을 넘어선 기량과 자신감 가득한 무대 에티튜드가 있어 충분히 몰입하며 즐길 수 있는 연주회였다.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신입의 실수를 눈감아 주는 시기는 짧다. 실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반복해서도 안된다. 기성 음악인으로 오롯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창시절보다 더 치열한 연습과 자기 관리가 필요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무대를 빛내준 10명 신인 음악가들의 승승장구를 진심으로 바란다.

글_정지영

2023 부산모카시네미디어 - 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

2023. 4. 6. ~ 8. 6. 부산현대미술관 제2전시실

부산현대미술관(관장 강승환)은 개관 5주년을 맞아 새로운 정례 전시프로그램인 '부산모카 시네미디어 - 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이하 시네미디어)을 개최한다. 시네미디어는 국내외를 포함해 최초로 시도하는 새로운 형식의 영화 전시로 생태학, 인류학, 정치경제학, 그리고 영화의 역사에 이르는 포괄적인 주제를 담는다. 설치작품부터 영화, VR작품까지 다양한 영화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사오트 이스마일로바, 차이밍량 등 영화감독 78명의 100여 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의 님시

먼저 제2전시실을 업사이클링 자재를 활용해 환경친화적으로 구축하고, '극장 을숙' '극장 행성' '시네미디어 존' '시네미디어 라운지' 등 4개의 공간으로 구분했다. 각 공간의 장소성은 생태적인 존재로서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환경과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다층적 시각을 재세계화(re-Worlding)라는 키워드로 제시한다.

'극장 행성'에서는 콜롬비아와 프랑스에서 영화를 제작하며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사와 디스토피아 장르를 가로지르는 라우라 우에르타스 밀란의 <에쿠아도르>와 영국에서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는 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스콧 발리의 <찰나> <배후지> 등 다섯 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시네미디어 라운지'에서는 사오닷 이스마일로바의 작품과 동시대 A.I.와 가장 활발하게 협업하고 있는 글렌 마샬의 작품과 마주할 수 있다. '시네미디어 존'에서는 멕시코만을 배경으로 식민주의의 공포와 산업 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생태계 파괴를 목도할 수 있는 에밀리아 스카놀리터 감독의 <어둠의 깊은 지대>를 상영한다.

'극장 을숙'은 전시장 내 70석의 극장 시스템을 도입해 매일 2~3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눈에 띄는 작품으로 C.W 윈터와 안더스 에드스트롬 감독의 <일과 나날>, 아시아 뉴웨이브의 대표적인 감독 차이밍량의 신작 <곳> <소요> <모래>가 있다. 또, 사오닷 이스마일로바의 설치 작품 <홀린 듯> <두 개의 지평선들>과 3채널 설치 작품 <옥소스> <아랄해: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의 낚시>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영화 잡지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역대 최고 영화로 선정된 아키만 감독의 <잔느 딜망>은 한국 최초 상영이며, 극단적인 롱테이크와 긴 영화시간으로 유명한 라브 디아즈 감독의 <부서지는 파도>도 상영작에 포함되었다.

국내 작품으로 2021년 별세한 물방울 작가 김창열 화백



의 이야기를 아들 김오안과 그의 동료 브리지트 부이오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한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와 부산 사상구의 노동사를 다룬 박배일 감독의 <사상>, 국내 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질문하는 왕민철 감독의 <생츄어리>와 <동물>, 그리고 김기영 감독의 걸트 영화 <이어도>도 만날 수 있다.

시네필에서 전방위로 활동하는 국내외 감독, 평론가, 학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포럼과 강연도 부대행사로 열린다. 부산현대미술관은 이번 전시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예술 장르의 경계를 탐색하며, 확장하는 시도를 통해 미술관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한다. 전시 관람료와 부대행사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_051)220-7400 / 편집실

제16회 부산국제즉흥춤축제

2023. 4. 21. ~ 23.

부산대 아트갤러리 부산시민공원 외

제16회 2023년 부산국제즉흥춤축제(Busan International Improvisation Dance Festival, Bimpro)가 4월 21(금)일부터 23일(일)까지 부산대 신라대 캠퍼스, 부산대 아트갤러리,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렸다.

부산국제즉흥춤축제는 횡수로는 16년이지만 2003년 경성대학교 정보소극장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하면 올해 20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부산국제즉흥춤축제는 대중과 소통하며 지역성을 담고자 해운대 백사장, LIG아트홀, 춤공간 Shin, 사상인디스테이션, 대학캠퍼스, F1963, 부산 시

민공원 등 부산의 여러 장소에서 관객과 만났다. 예술의 과정 자체가 춤으로 되는 즉흥춤은 다양한 공간과 순간에 면대 면으로 관객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왔다. 즉흥의 다양한 순간은 그 동안 캠퍼스 야외, 열린, 릴레이, 즉흥 잼(jam)¹⁾, 배틀, 접촉, 난장 즉흥으로 진행되며 출연자, 진행 취지, 장소, 시간에 따라 참여는 자유롭지만 그 안에서 암묵적인 춤의 형식이나 내용 또는 즉흥의 해석은 참여자 마다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캠퍼스 야의 즉흥은 머지않은 미래에 전문 무용수의 길로 나서는 대학생이 도구나 기능으로의 신체 이외에 몸으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경험하거나 새로운 실험에 전문 예술가와 동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열린 즉흥은 그야말로 축제에 누구나 어떤 단체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22년에 이어 올해 출연한 장애인 무용단 [해피바이러스]는 무용을 통해 사회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가는 장애인 무용단체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릴레이 형태의 즉흥 춤은 정해진 시간에 다양한 참가자의 연속적인 몸의 수다로 “말의 내용은 심벌일 뿐 소통에 있어서 93% 몸으로 전달된다는 의사소통”에 대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²⁾ 즉흥 잼은 관객, 출연진의 경계 없이 공연이 펼쳐지는 장소에서 누가 즉흥 잼을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즐길 수 있으며, 배틀 즉흥은 춤의 장르를 뛰어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탈’과 ‘충돌’의 짜릿한 자극을 공유할 수 있었다. 접촉즉흥은 타자를 배려하는 몸의 지속적인 접촉이 끊임없이 역동적이면서 미묘한 움직임으로 일어나며 ‘우리’라는 집단이 말하고자 하는 축제의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전달한다. 마지막 난장즉흥은 축제기간 어느 곳에서도 ‘추는 춤을 경험 못한 관객이나 행사 스테프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구경꾼까지 뒤섞여 규칙이나 정해진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잠시 무질서를 허용하며 축제를 마무리한다.



사실상 올해 축제의 경우 앞에 나열한 다양한 그 순간들을 모두 회복하기는 힘들었다. 바로 축제 하루 전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기도 하고 코로나 시대를 상징해 온 거리두기도 원래대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은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의 지적처럼 ‘고립의 시대’³⁾는 벗어나기 어려웠다. 코로나19대응을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의 시행은 초연결 시대에 그 그들과 스마트폰에 고립으로 오프라인에서의 대면적 고립은 이미 쉽게 회

1) ‘jam’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흔히 재즈에서 말하는) “즉흥연주/합주(improvisation)를 하다”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주파수가 비슷한 전파를 보내는 방식 등으로 방송/신호 등을) 방해하다”(to block or confuse [a broadcasted signal])의 뜻이 있다.

2) 메라비언(Mehrabian, 1972)

3) https://www.mcst.go.kr/kor/s_culture/book/bookView.jsp?pDetailSeq=1751 고립의 시대: 초연결 시대에 격리된 우리들, 노리나 허츠 지음



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억압되거나 불안감이 높을수록 그 반대의 자유와 심리적 편안함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는 부산국제즉흥춤에서 순수한 춤을 통해 더 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2020년 제13회 부산국제즉흥춤축제는 4월에서 9월로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축제 진행이 불확실할 때가 있었다. 당시 방구석에서부터 골목, 공원, 산과 바다에서 그 순간 각자의 몸의 반응을 휴대폰에 담으면서 매체를 통해 바라보는 나를 마주하도록 했다. 비록 익숙하지 않았던 디지털 기기 사용이나 영상편집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면 작품에서와 다른 낯섦과 새로움이 있었다. 2021년 제14회 때는 방역 단계가 조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거리두기로 야외 개방된 상태에 관객이 모이기보다 극장의 제한된 공간에서 참가 인원을 조정하며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작은 소극장의

제한된 인원이 아쉬웠지만 부산 시민 참여를 도울 수 있는 [해운대 자연즉흥]의 영상작업이 추가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맞게 서로 위로하며 축제를 이어갔다. 2022년에는 워드 코로나로 한결 정부 방역 방침이 유연해진 상황에 부산시민공원의 방문자센터 야외무대와 기억의 기둥 이외에도 남문 호수에서 벽산홀 힐링 숲 내 10곳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 공연으로 시민들은 오랜만에 가까이 그리고 참여하고 보는 과정에서 연신 밝은 표정이었다. 축제는 방역을 준수하며 물리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 팬데믹으로 멀어졌던 관객, 참여자 그리고 예술가의 관계에 대한 갈증을 조금씩 풀 수 있었으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민즉흥]의 영상 참여를 통해 비대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채널도 계속 열어 놓았다.

2023년 4월 21일(금) 축제 첫째 날 부산대와 신라대에서 진행된 캠퍼스 즉흥에 이어 부산대 아트홀에서 진행된 기술-융합 즉흥이나 둘째 날 22일(토) 시민공원 방문자센터 야외무대에서의 열린 즉흥과 이어진 난장 그리고 마지막 23일(일) 흔적 극장에서의 릴레이 즉흥은 전체적인 흐름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새로 추가되거나 일부 축소되기도 했지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즉흥의 다양한 순간과 변화를 일깨워 주었다. 부산대 아트센터에서 디지털아트 작가 김현명과 음악 김한필 그리고 7명의 즉흥 무용수가 어우러진 기술·융합의 즉흥은 관객들에게 호기심과 상상의 기회를 제공했다. 60분 동안 디지털 영상과 음악, 무용수가 만나는 차이에 관객의 감탄이 나오기도 했으며 상황의 부조화를 순간적으로 지각하게 해서 즐거움과 웃음을 주기도 했다. 기술·융합 즉흥에 참가한 김현명 디지털아트 작가는 이번 작업을 통해서 “춤이 공간에서 내뿜는 에너지가 대단하고 몸 자체 물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언어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웠다”라고 하며 기술·융합에 대해서 서로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결합한다는 것이 물리적 제약도 따르고 설치나 기술적인 진행이 쉽지 않은데 부산국제즉흥춤축제의 기술·융합 즉흥이라서 가능할 수 있었다고 했다.

부산에는 부산국제즉흥춤 이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로 바다와 연계한 다양한 축제를 시민들이 만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산국제즉흥춤축제는 거대하게 세운 철골 구조물이나 무대 공연 위주의 기존 축제와는 달리 관객이 바라보는 자리와 눈높이에 함께 하며 해변, 문화기반시설, 시장, 소극장, 변화가에서 시민 속에 뛰어 들고 어우러질 수 있는 춤의 시대적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축제에서 창의적 움직임 개발하고 구체화하는 워크숍이나 팬데믹Pandemic에서 즉흥춤의 현장성과 주요 가치인 소통과 관계맺음에 대해 온라인 문화예술의 가능성을 확장 시키면서 포스트코로나로 나아갈 때 춤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의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장르를 초월한 참가자(전문가 및 비전문가)들의 치유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부산국제즉흥춤 제10회 공연에 대한 리뷰에서 부산국제즉흥춤축제 노영재 운영위원은 “10년의 나이로 성장

하는 만큼 자칫 워크숍과 공연이라는 형식에만 얽매어 매너리즘에 빠지는 태도를 경계하고, 대중이 원하고 또 대중에게 필요한 콘텐츠의 다양성도 늘 염두에 두고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부산국제즉흥춤축제는 긴 시간 동안 춤의 전문성과 그 세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 그리고 대중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콘텐츠의 다양성을 잘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듀이는 목적은 행위의 수단이라고 했다. 과거의 20년 이후 앞으로 20년은 부산국제즉흥춤축제의 지속성과 함께 춤의 스펙트럼을 폭넓게 펼쳐나가며 지금까지와 같은 순수한 춤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글_함수경 인스문화예술교육연구소 대표





창의적인 작품으로
한국 서각의 수준을 높이는

제18회

한국서각협회

부산지회전

2023. 5. 1. ~ 6. 부산시청 제2전시실

이규명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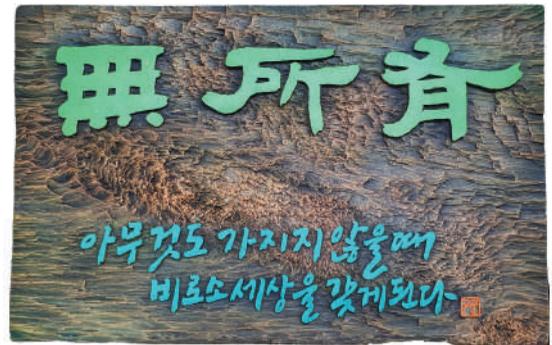
박석균 작

문자 조형 예술인 서각 작품으로 범고창신을 이루는 한국서각협회 부산지회가 제18회 부산지회전을 5월 1일부터 6일까지 개최한다.

부산은 예로부터 동서양의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여 우리 것과 결합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온 예술의 도시다. 이번 전시는 날로 다양해지고 전문화,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예술의 세계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점에 착안했다. 아시아 각 나라에서 쓰는 글씨체를 서각으로 재구성했을 때의 느낌과 현대화해 가는 과정을 비교 분석하고자 국내 작가 30인이 출품한 입체작품 20점, 평면작품 30점과 해외 작가 8인이 출품한 평면작품 10여 점 등을 만날 수 있다.

서각가는 쓰고자 하는 작품 내용을 선택하고 서체를 정해 글씨를 써서, 고르고 고른 목재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 각을 한다. 창의적인 표현과 기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부산 서각가들과 해외 서각가의 작품은 예술로서의 서각이 보존, 계승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게끔 한다.

문의_010-3940-3060 / 편집실



곽동철 작



중국_呂如雄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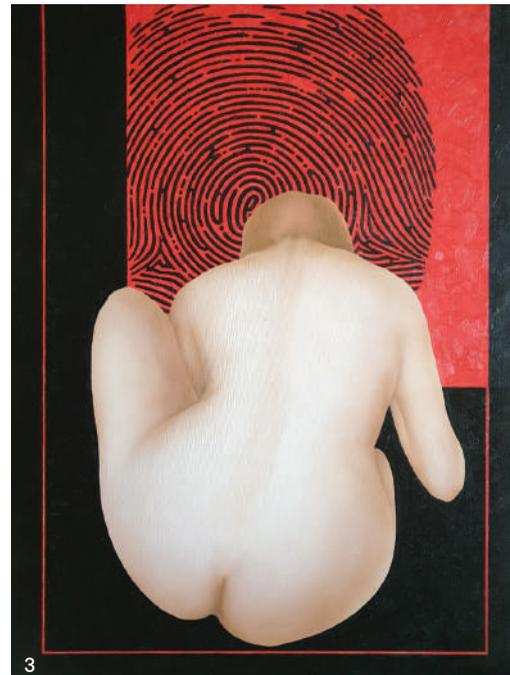


김귀옥 작

길동인 60주년 기획전

- 길동인의 뿌리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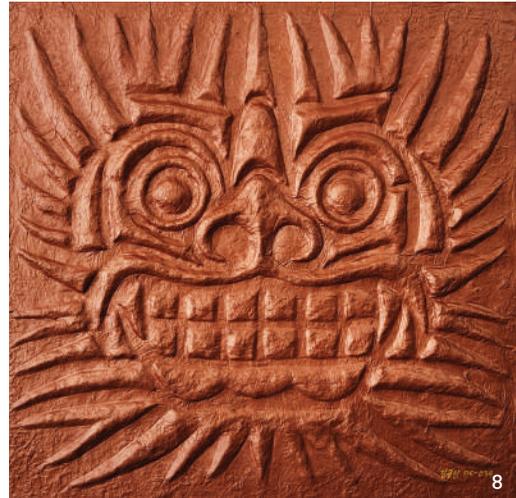
2023. 5. 15. ~ 21. 부산시청 2·3전시실



‘1960년대 미술가가 있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에서는 부산사범대학이 유일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 부산 교육대생들 중에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은 대학 내에 미술반을 만들고 조동벽 염태진 김영교 교수로부터 과외지도를 받았다. 졸업을 앞두고 그림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와 선후배 간의 관계를 이어갈 구심점으로 동인회가 창단된 것이다.’(예술부산, 2014년 8월호)

[길동인회](회장 안태준)는 부산교육대학교(전신 부산사범대학) 동문 미술단체로 1963년 부산 공보관에서 故 문순상 화백을 중심으로 10명의 작가가 열었던 창립전이 시초가 되었다. 길동인회의 전시 연혁을 보면 지역의 전시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한눈에 보일 정도다.





- 1 정태영_천상의 풍경, 유화, 45.5×53.0cm
- 2 김문수_태양을 품은 고향이야기
(The story of a sun-bearing home town), 유화, 53×45.5cm
- 3 강선보_상황Situation, Oil on canvas, 53×7cm
- 4 윤종철_자갈치여인들, Oil on canvas, 116.8×91.0cm
- 5 김부웅_나무 밑 새, 유화 아크릴, 53.0×65.1cm
- 6 주경업_색즉시공 공즉시색, 펜화(한지에 펜), 56×27cm
- 7 박대련_념념-화성을 가다, Mixed media on canvas, 53.0×45.5cm
- 8 김용달_황동도깨비 DC-034, 한지 아크릴 경명주사, 55×55cm

길동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선보 윤종철 서재만 박대련 심재중 정수경 김문수 정태영 김부웅 김용달 주경업 송영명 작가는 지역의 원로 작가로 부산 화단의 역사이다. 이번 전시는 '길동인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60여 년간 지나온 길을 되짚어본다. 부산사범대(현재는 부산교육대학교) 출신으로 현재도 길동인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12명의 작가와 동인회와 인연을 맺었던 8명의 작가를 초대했다. 여기에 회원들의 작품이 함께한다.



9



10



11



12

안태준 회장은 “지역 화단에서 뜨거운 지지를 받아온 강선보 선생 등 원로 작가들을 초대해 전시를 함께함으로써 동문 작가로서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작품세계와 예술정신을 본받아 회원들이 더욱 향상된 작품활동을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예술 애호가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문의_010-7532-6226 / 편집실

- 9 송영명_추념, 아크릴, 53.0×40.9cm
- 10 문순상_春郷, 유화, 72.7×53.0cm
- 11 심재중_남향풍경, 유화, 72.7×53.0cm
- 12 정수경_노도(성난 파도), 유화, 72.7×60.6cm



부산문인협회 창립 61주년을 기념하며

제2회 부산문인의 날

2023. 4. 20.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제2회 부산문인의 날’ 기념식이 부산예술회관에서 열렸다. 부산문인협회(회장 이석래)는 창립 60주년을 맞은 지난해부터 매년 4월 20일을 부산문인의 날로 제정한 바 있다.

김정숙 시인이 문병란의 「인연서설」을 잔잔한 목소리로 낭독하며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인연의 소중함을 전했다. 문인들의 행사다운 시작이다. 이용문 부회장의 힘찬 개회사에 이어 부산문인협회 61주년을 돌아보는 특별한 영상이 흘렀다. 초대회장인 향파 이주홍 아동문학가부터 2대 회장 청마 유치환 시인, 3대 회장 요산 김정환 소설가 등을 거쳐 현재의 19대 회장에 이르기까지 역대 부산문인협회 회장들의 문학과 업적을 소개하는 영상은 부산문인협회의 뿌리와 저력을 인지하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이석래 회장 또한 “어려웠던 시절인 1962년, 이렇게 좋은 계절에 문인협회를 창립해준 선배 문인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올해부터 ‘사단법인 부산광역시문인협회’로 거듭난 것에 대해 한 번 더 자축의 인사를 전했다.

테너 양승엽과 [영도구립소년소녀합창단] 등의 축하 무대에 이어 시상식이 거행됐다. 한국문인협회회장상은 서관호 시조시인과 이순선 시인이, 부산시의회의회장상은 안상욱 시조시인과 주순보 시인이,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은 이숙례 시인과 김영희 수필가가, 부산문인협회장은 고승호, 명은애 시인이 받았다. 공로상은 강자옥, 김명옥, 김재연 시인이 받았다.

국악인의 창 무대, 플루트 연주, 학춤, 김영호 아동문학가와 4인이 모인 [부산아코디언앙상블]의 아코디언 연주 등 다채로운 축하 무대가 있어 더욱 풍요로웠다. 부산문인의 날이 ‘부산문인협회의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겠다는 제정 의미처럼 명실공히 문인 축제의 장이 되어가길 기대한다.

/ 편집실

다섯 번째 계절 _낮선 행성, U+1F728

2023. 5. 2. ~ 6. 11. 금샘미술관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은 2023년 첫 기획전시로 시각예술 감상과 공간적 체험이 융합된 교육전시 '다섯 번째 계절_낮선 행성, U+1F728'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STUDIO1750의 김영현 손진희 작가의 참여로 엔데믹을 향해 가는 이즈음 다가올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보여준다. 인공정원의 모태인 '평행정원'에서 현재의 현상들이 미칠 근미래의 상황을 두려움의 시선으로 보기보다 미래를 이야기하며 오늘을 상기하려 한다.

먼저 로비 전시장에서는 심해 생명체에서 영감을 받아 공기로 채워진 조각들이 유영하듯 움직이는 '인공정원' 시리즈가 관객을 반긴다. 전시실1은 팬데믹을 버텨낸 시간들을 기록한 방으로 금빛의 파편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반짝이는 기억' 시리즈로 채웠고, 전시실2는 모든 벽면에 미러 필름을 부착하고 블랙라이트 조명에 반응하는 형광 재료를 준비해 상상력을 확장하는 체험공간으로 꾸몄다. '다섯 번째 계절'

은 인공정원 시리즈에서 이야기하는 어느 특정 시공간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상상의 정원, 도심 생태 환경에서 점점 변이하고 있는 생명체를 닮은 인공정원, 인간이 만든 욕망의 정원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오늘의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금샘미술관은 생활문화관 전시실로 사용되던 곳으로 금정문화회관은 2021년 리모델링으로 현대미술에 적합한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첫 기획전인 '다섯 번째 계절_낮선 행성, U+1F728'에 대해 전시 관계자는 "현실과 그 이면에 있는 가상(상상)의 공간 사이에서 우리의 계절로의 서사를 그려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_051)519-5657 / 편집실



체험존_내가 사는 방



Art Space & Gallery **J. Movement**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 심지어 두 사람이, 각자 다른 표현 매체를 사용하는 작가일 경우에 말이다. 현대인이 거의 매일 접하는 ‘택배 상자’를 주제로 전도顛倒시키는 민지훈 작가와 낯은 도시의 흔적을 회화와 오브제로 표현하는 양나영 작가의 작품에서 세계의 질서가 된 ‘위계’를 뛰어넘는 힘을 찾는다. 금정구 부곡2동, 그러니까 흔히 부산대 변화가로 알려진 거리에서 ‘온천천’을 기준으로 해 반대편에 자리한 제이 무브먼트 아트 스페이스&갤러리(이하, 제이 무브먼트)에서 두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제이 무브먼트는 부산을 근거지로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 이야기와 전개까지 담아내고자 2021년 개관했다. 지역성에 대한 담론과 수도권과의 양극화가 이슈일 때

에 지역적 시각으로 타지역의 전개를 다룬다는 것부터가 수도권(서울)을 상위로, 지역(부산)을 하위로 보지 않는 태도로 보인다. 개관 후 다양하고 실험적인 전시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부족함을 느낀 이곳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므로 2023년 첫 기획전 ‘초월된 위계들’은 제이 무브먼트의 재개관전이라 봐도 무방할 듯싶다.

구조는 좀 특이하다. 1층에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인더스트리얼(Industrial)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의 지하 전시실부터 갔다가 내부의 중정 계단을 올라 1층 전시실을 보고 나와도 되고, 두어 작품이 놓인 1층 전시실을 거쳐 지하로 내려가도 된다. 낯선 현대미술의 세계에 곧 들어설 관람객을 위해 입구 벽면에 적어둔 ‘전시 읽는 법’을 본다. “하이퍼링크가 위

계를 파괴한다”고 예측했던 클루트레인 선언은 보란 듯이 빛나갔다. ... 클루트레인 선언문은, 인터넷의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전통적인 권력 구조와 위계를 우회하고, 해체할 수 있으리란 희망찬 미래가 담겨 있었다. ... 잊혀졌던 사람들, 사유, 역사, 신념 등을 사회적 위계 구조 안에서 벗겨내고 포착하여, 링크(중계)하는 것은 예술이 가진 실재적인 네트워크로서의 힘이다.’ 관람객은 생각할 테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계층 구조를 드러내 보이는 전시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평범한 택배 상자에 센서와 카메라를 달아 상자의 '시선'에서 이동 경로와 움직임을 만드니 상자는 더는 목적성에 매몰된 객체가 아니게 되고, 대개 '위계 아래의 인간'이 살아가는 달동네의 풍경이 분절된 형태의 회화로 조합되거나 높이가 제 멋대로인 계단 등의 오브제로 놓인 모습은 그 속에 생동했을 삶의 모습을 함부로 재단하진 않았는지 경계심을 갖게 한다.

홍터아트센터 입주작가로 선정되며 서울에서 부산에 온 민지훈 작가, 제이 무브먼트의 포트폴리오 수집으로 인연이 닿은 양나영 작가 2인을 섭외하고 기획한 건 올해부터 공간에 상주하며 운영을 맡게 된 이지원 큐레이터다. 전시 서문의 본령을 살려 근간이 된 이론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배치해 씬으로써 관객의 이해와 사유 둘 다 놓치지 않은 장본인이다. 예술에 관한 관심으로 금전적 수익 없이 공간을 비롯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대표님'과 지역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지지에 힘입어, 그가 목표로 하는 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벗어나 다양한 관계성으로 엮인 네트워크가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작가들에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작업실이 되고 관람객에게 몇 번이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 말이다. 성별 나이 직군 성향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찾으면 더할 나위 없다.

인간의 노동에 관해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자연에 관해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각종 이야기에 관해서 나누고 해석할 수 있는 전시를 만드는 게 올해 계획이다. 일본·대만 등에 있는 대안공간과 연결해 작품을 소개하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다. 분명한 정체성은 이정표를 선명하게 한다. 제이 무브먼트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한다.

글_이효민



양나영



민지훈



향성전

향 성 전

2023. 5. 15. ~ 6. 3. 씨니갤러리

지역의 불자 작가 25인이 마음을 모아 창립전을 연다. 향기로운 내음이 가득하다는 뜻을 함유한 '향성전'이다.



1 박선민_사유, 스기시에 한국화 채색, 45×53cm
 2 백낙호_연꽃만다라, 젯소 유화, 20F
 3 조규철_동자승, 종이에 수채, 52×45cm
 4 이순이_환희, 종이에 아크릴, 43×40cm



부산에 불자 작가들은 많지만 불자회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박대련 원로 작가의 제안에 참여 작가들의 조언을 경청하며 이순이 박선민 정쌍념 이울선 작가 등이 창립전으로 이끌었다. 박선민 회장을 비롯해 ‘향성전’ 참여작가들은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작업을 하는 지역의 중진 작가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면의 다스림으로 새기면서 꾸준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창립전 주제는 향성전의 순항을 바라는 작가들의 마음을 반영해 ‘줄탁동시(嗚啄同時)’로 했다. 끝 모를 욕망과 일등만 살아남는 경쟁의 시대, 향성전 작가들은 평안과 참‘나’를 찾기 위한 화두를 던지며 수행의 결실을 예술적 영감으로 형상화

한다. 인류와 자연의 공존 그리고 생명과의 어울림에 대해 묻기도 하고, 작업과 수행을 같이 하면서 얻은 내면의 심도를 ‘선’의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르면서 하나인 조형언어를 드러내어 세상의 시선과 어울리려는 작가들의 의지를 담은 25명의 창립회원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 감상할 수 있다. 박선민 회장은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불교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이 많이 동참해서 향성전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_010-7326-2666 / 편집실



| 예서제서

1



2

Photo Club 빛따라 길따라

19人 19色

2023. 5. 2. ~ 27.

영도놀이마루 2층 전시장

[Photo Club 빛따라 길따라](회장 신갑섭)가 부산학생예술문화회 관 영도놀이마당의 초대로 '19人 19色'전을 선보인다.

[Photo Club 빛따라 길따라]는 2018년 결성된 사진 동아리로 부산교사사진연구회 소속 회원 중 시모노세키시와의 사진 교류를 희망하는 전·현직 교직원 19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부산의 우수한 예술단체의 전시를 통해 영도의 삶과 역사, 자연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데 힘써온 영도놀이마당의 2023년 첫 기획초대전이다.

'영도 안에서도 영도사람이고 영도 밖에서도 영도사람'(심득순 수필 「그녀」)중이 되는 영도는 한때 낯고 빛바랜 도시였지만 최근 들어 젊은 감각들이 스며들어 SNS에서 핫한 감성을 풀어놓으며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전시를 위해 회원들은 해방 이후 수많은 부침을 겪은 영도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곳곳의 풍경과 사연을 각자의 시선으로 포착해 앵글에 담았다.

- 1 신감섭_골목2
- 2 하봉걸_영도 소경
- 3 정명희_영도0401
- 4 손은정_따뜻함이 있는 해돋이마을1
- 5 권은도_카페풍경1



회원들은 조선소 노동자들의 땀과 안식이 묻어 있는 봉산마을, 바다와 삶의 현장을 고스란히 굽어보는 해돋이 마을, 봉래산 끄트머리 벼랑 끝에 다다다닥 좁은 골목으로 어깨동무를 한 흰여울문화마을과 깡깡이마을 등 영도의 속살을 들여다보았다. 발품을 팔며 화려했던 조선산업의 쇠퇴를 반영하듯 녹슨 채 방치된 철쭉의 시간과 2030 부산엑스포를 빛낼 북항 재개발 현장의 낮과 밤, 카페에서의 쉼과 낭만을 만나기도 했다.

한 달을 꼬박 영도에서 살다시피 한 회원이 있을 정도로 작품마다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다양한 촬영기법이나 포토샵 기술을 배제하고 담백하게 담아낸 100여 점의 작품에선 영도의 어제와 오늘이 흐르고 있다.

문의_051)403-3464 / 편집실



부산역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부산 현지실사 들여다보기

2030세계박람회 유치 위한 일정표

- 2021년 6월 유치신청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제출
- 2021년 12월 유치신청도시 1차 경쟁 PT
- 2022년 5월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국정과제 채택
- 2022년 6월 유치신청도시 2차 경쟁 PT
- 2022년 9월 유치계획서 제출
- 2022년 11월 유치신청도시 3차 경쟁 PT
- 2023년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부산 현지 실사
- 2023년 6월 유치신청도시 4차 경쟁 PT(예정)
- 2023년 11월 유치신청도시 5차 경쟁 PT(예정)
- 2023년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개최지 결정
171개 회원국 비밀투표(예정)

지난 4월 3일,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도시인 부산의 현지실사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단(이하 실사단)이 한국을 찾았다. 유치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1차), 국회 방문, 국무총리 면담, 광화문 광장 방문 등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친 실사단은 4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 도착해 4일간 부산에 머물렀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 부산 시민의 열망이 묻어났던 현장과 지역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던 시간들, 부산에 스포츠관을 비롯한 공간에서 '예술의 힘'을 보태기 위해 진행한 행사 등을 짚어 본다.

실사단을 향한 환대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부산역 광장에 모여 실사단을 환영하는 풍경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다. 'BIE=Busan IS EXPO' 'Busan is good for EXPO' 등의 문구가 쓰인 현수막과 피켓, 실사단과 동행한 취타대(임금의 행차나 국가의 큰 행사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악대) 행렬, 각 국가의 전통의상을 입고 나온 다문화가족들, '부산에 유치해'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는 시민 등은 '시민 참여 열기'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5일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대표 20여 명(오수연 부산예총 회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은하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장,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 등)과 함께 밀면과 '짜파구리'를 먹는 오찬을 하며 100만 유치 서명 등 엑스포 유치 열망을 전달받는 시간을 가졌다. 6일 시그니엘 부산엑스터스카이에서 열린 오찬은 미래 주역인 청년들과 가졌다. 부산의 청년 기업인, 바리스타, 대학생 등 17명의 청년들은 '외국인이 바라보는 부산' '기후변화에 대한 부산 청년의 태도' 등을 주제로 왜 부산에 엑스포가 유치되어야 하는지를 역설했다. 이번 실사의 역점으로 꼽힌 것은 대통령의 개최 의지, 개최국의 준비 상황, 정파 간 갈등 여부,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국민들의 참여 열망, 미디어-언론 관심, 민관의 조화, 개최국의 문화콘텐츠 등이다. 파트릭 슈페히트 실사단장이 이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년간 수많은 실사를 진행해왔지만 이번만큼 지역 시민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듯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참여 열망'에 대한 부분을, 부산 시민들은 실사단을 향한 환대로 가득 채웠다.

시민단체 오찬





을숙도 생태공원



유엔기념공원

부산만의 매력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간직한 부산에서 고심 끝에 선정한 실사단 방문지는 을숙도 생태공원, 부산항 북항, 유엔기념공원이다. 부산역 환영 인사를 받은 실사단은 가장 먼저 사하구의 을숙도 생태 공원에 방문했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던 땅을 환경 복원 작업을 거쳐 습지를 포함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국내에서 가장 큰 철새도래지이기도 하며, 부산이 내건 2030 엑스포 슬로건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의 부제 중 하나인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다. 실사단은 치료를 마친 야생 조류 5마리를 자연으로 방사하는 모습을 보고 샛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아름다운 유채꽃밭을 거니는 등 을숙도의 자연을 한껏 느꼈다. 2030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부산항 북항은 대한민국 최초 근대 무역항으로 출발해 세계 3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발돋움했던 장소다. 부산 신항이 생기면서 국내 최초 친환경 항만재개발로 시민의 품에 돌아왔다는 점, 원조 물자를 들여 오던 곳에서 수출 물자를 내보내는 곳이 되었다는 점 등의 상징성이 엑스포 슬로건에 걸맞다. 실사단은 5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가상현실 속 북항 일대와 재개발 후 바뀔 북항의 모습을 입체 영상으로 보고 옥상 전망대에서 봄비가 내리는 북항을 둘러보기도 했다. 비가 그친 6일 오전 실사단은 유엔기념공원에 방문했다. 1951년 조성된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인 이곳에는 6·25 전쟁에 참전한 11국 2320명의 용사가 잠들어 있는데 한국전쟁의 아픔을 딛고 성장한 부산의 저력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사단 8명 중 슈페히트 실사단장을 포함한 4명이 그리스·프랑스·이탈리아 등 6·25 참전국 출신이다. 이들은 유엔군 전사자 4만895명(실종자 포함)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힌 추모명비를 살피고 전몰장병을 추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유엔 장병들의 뜻이 부산 엑스포를 통해 현대에서 미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엑스포 정신’을 되새겼다.



부산예술회관 공연

예술의 힘을 보여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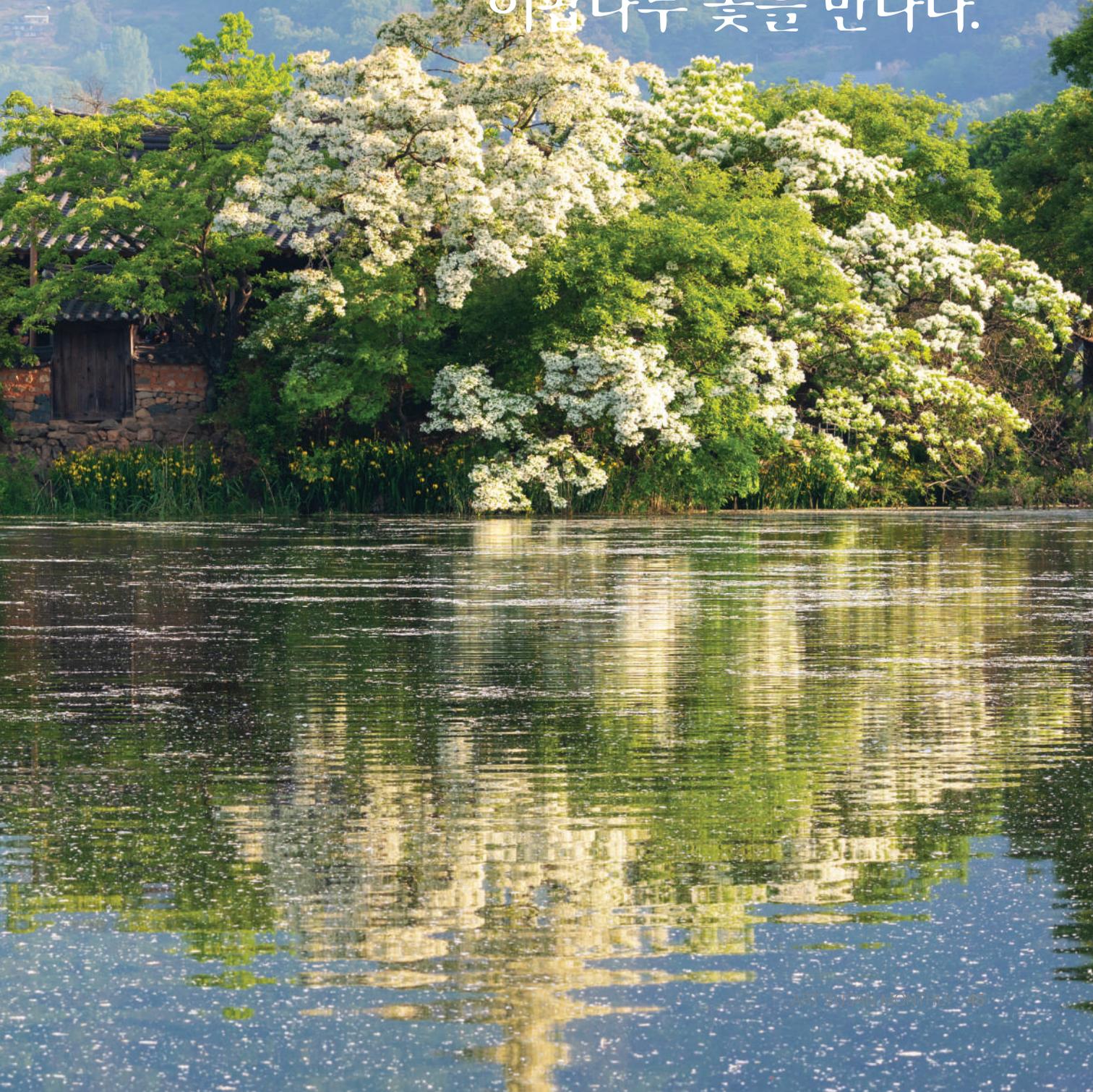
엑스포 유치에서 가장 큰 브랜드 파워로 통하는 게 'K'인 만큼 K-예술의 힘도 이번 실사단 맞이의 핵심이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영화의전당에서 5일에 열린 'K-컬처 나이트' 행사는 세계적인 성악과 K팝 공연으로 실사단에게 예술문화의 힘을 보였다. 부산예총에서도 5일부터 7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야외 광장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마당 공연'을 개최하며 이에 동참했다. 부산을 대표하는 소리꾼과 전통무용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예술의 전통성이 유지, 발전되고 있음을 알리고 실사단 환영에 한 손을 보탠 것이다. 5일에는 부산 소리꾼들과 악사들이 나와 '부산의 소리'를 펼쳤다. 6일은 백의의 무용수들이 펼치는 버꾸춤이었다. 화려한 가락 위에 버꾸를 돌리고 차올리는 동작을 엮어 신명과 시각적 아름다움까지 더해졌다. 7일은 눈길을 사로잡는 상모 마당놀이에 전통악기 연주가 더해졌다. 3일 내내 '2030 BUSAN EXPO'가 쓰인 '만장기'가 음악에 맞춰 나부끼며 흥을 돋웠다.

실사단에게 보여준 부산 시민의 환대와 천혜의 환경을 가진 매력적인 도시 부산의 모습, 그리고 예술문화라는 소프트 파워는 짧다면 짧은 실사 기간에 분명한 인상을 남기며 슈퍼히트 실사단장으로 부터 "한국의 최대 셀링포인트는 부산 시민"이라는 말을 끌어냈다. 실사 결과는 오는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에 보고서로 공개되겠지만, 이제 중요한 건 부산 엑스포 개최의 성공·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부산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통해 한국의 성장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추진한다거나, 엑스포 인프라 사후 활용 방안으로 북항 양곡부두 사일로(Silo, 저장소) 내 공적개발원조(ODA) 기념관을 구축한다는 방안을 밝히며 지속적으로 '가치'를 강조해온 것처럼 말이다.

글_이효민, 사진_협조_부산시2030엑스포추진본부



아름다운 5월,
위양지에서
이팝나무 꽃을 만나다.





5월은

알록달록 봄꽃들로
봄기운이 가득하다.

고즈넉한 위양지에서

하얗게 꽃을 피운 이팝나무의 꽃은
마치 봄에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한 폭의 수채화 같다.

a flower
a



때론 이팝나무의 만발한 꽃송이는
밤알이 툭툭 터지듯 새하얀 쌀밥처럼
보슬보슬 탐스럽게 느껴진다.

이팝나무 하얀 꽃송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위양지의 작은 나룻배는 모든 시름 잊고
봄바람과 함께 유유자적 흘러간다.

글 사진 김나영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

of
fringe tree

주 감 로 260-34
Jugam-ro ↑
260-1

주례동 하늘미릿길 골목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가수 김현식의 절규하는 듯한 목소리를 떠올린다. 신촌블루스 2집 앨범에 실렸던 레게풍의 노래, 나의 이십대가 끈덕지게 녹아 있는 시대,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며 사랑을 꿈꾸게 하던 길. 그래서 골목은 낡고 늙어도 내겐 언제나 청춘의 길이었다.

오래된 골목 앞에 서면 비단 나만 그러할까. 이웃집 담장이 다닥다닥 어깨를 걸고 소색 당목 이불 흘청이 바지랑대를 기울이며 햇살을 되쫓던 곳, 녹슨 대문 앞에 ‘개조심’이란 팻말이 문패같이 붙어 있고 ‘젓방 있씀’처럼 맞춤법 한두 군데 틀린 광고지가 전봇대나 담벼락에 붙어있던 곳, 뒤란 귀퉁이에 터주 어른마냥 자리 잡은 감나무나 매화목이 한가하고 화분 대신 붉은 고무 다라이에 심은 작약도 해마다 꽃을 피우던 곳, 덜 마른 보릿대에 보리까락을 섞어 태운 모깃불 연기가 초저녁달을 향해 사라지던 곳, 큰소리로 순덕, 봉숙, 말남, 춘식, 금자를 부르며 땃국물 절은 옷소매를 걷으며 맨발로 뛰쳐나올 것만 같은 곳. 삐뚤빼뚤 이어지던 골목은 마당이 되고 놀이터가 되고 일터가 되고 심지어 장터가 되었다. 그러니 옛 골목들은 아직도 내게 흑백 풍경으로 남아서 때로는 휘황 다단한 현대의 삶도 한갓되이 무화시켜버린다.

어제 내린 비로 벚꽃은 다 씻겼으니 오늘은 꽃구경 대신 한적한 골목을 걷기로 한다. 이왕 걷는 길은 좀 오래되고 낡은 골목이면 좋겠다. 그런 골목은 그저 자유롭고 평온하다. 지나다가 빈 의자가 보이면 잠시 앉아도 되고, 낯선 집 처마 밑의 제비집 사진을 몇 장 찍어도 나무라지 않는 인심이 있고, 반쯤 열린 창문 사이로 흘러나오는 유행가 몇 소절쯤 귀동냥으로 들을 수도 있으니까. 누가 심었는지 어디서 날아온 씨앗들이 잎을 틔웠는지 모르지만 냉이꽃 더미에 싹틔줄 같은 거미줄이 얽혀 있고, 길고양이 한 마리쯤은 돌옹벽 아래에 널브러져 오수를 즐기며, 털빛 반지르르한 검둥이도 남의 집 철 대문에 오줌을 갈기고 도망을 가야 제법 골목답다.

이럴 때는 인터넷 검색이 제격이다. 요즘은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도로마다 길 이름을 붙여 놓았다. 부산에도 인상 깊은 이름들이 참 많다. 동구에는 최초의 종합병원인 백제병원이 있었던 백제길과 명태고방길 외솔배기길 소막길길 시루대길 널박길, 진구 양정의 양지곡 고갯길인 물랑길과 풀내음길, 남구의 꽃여울길 배움씨길, 북구의 사랑골 질마재인 말등언덕길과 가야국의 역사가 깃든 모분재길, 금정구에는 부곡^{釜谷}의 우리말인 가마실에서 따온 가마실로와 은빛길 글벗길, 연제구에는 햇불 들고 마중 나오던 곳을 해바지로라고 정했고 토끼가 많이 살았다는 고개를 톳고개로라 이름 붙였다. 강서구도 가야국의 허황후가 비단을 가지고 지나갔다 하여 비단길과 왕후길 그리고 독립운동가 조정환 선생 생가로 가는 단심길이 있고, 사상구에는 하늘처럼 높고 용 같은 기상을 의미하는 하늘미룻길이 있다. 모두 의미 있는 이름 길이지만 왠지 하늘미



룻길이라면 떠들고 싸우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웃고 노래 부르는 소리 들리는 사람 냄새 그윽한 달동네라는 확신이 들었다.

예감은 적중했다. 이십여 년 전 폐역이 된 옛 국철역인 주례역 뒷골목에 이곳 마을이 있는데, 지하철역으로는 냉정역 2번 출구와 가깝다. 위로는 부산을 가르는 동서고가가 우뚝하고 주변에는 위풍당당한 고층 아파트가 솟았다. 그 현대식 건물 아래 주례동 하늘미룻길 마을이 납작 엎드린 채 골목과 하천을 거느리고 있다. 움푹 꺼진 땅에 자리 잡은 마을, 멀리서 보면 원래 물줄기가 흘렀을 법한 낮은 땅에도 골 따라 축대를 세우고 지붕을 올렸다. 언제부턴가 도시의 개천들은 전부 콘크리트를 덮어 복개하고 넓어진 땅은 주차장이 되고 도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마을은 급해지는 현대의 삶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것일까. 마을 한쪽 골목 옆의 꽤 넓은 도랑에 물이 고여 있다, 아니 아직도 흐른다.

샛길을 따라 걷는다. 지나는 사람에게 말을 붙여보니 오십여 년 전 주변에 공업단지가 생기면서 마을이 들어섰다고 한다. 흙길과 시멘트 길을 지나니 밧을 낸 무늬결 보도블록이 깔린 곳도 있다. 화려한 대문은 아니더라도 집집마다 녹슨 철 대문이나 알루미늄 새시 문이 달려 있다. 내가 어릴 때는 대문의 위용이 대단했다. 우리 집이야 근사한 대문 한번 걸린 적 없어 외딴집으로 불렸지만, 동네 어른들은 아무게 집 대신 그 집의 대문이나 특징을 붙여 지칭했다. 파란 대문 집, 붉은 대문 집, 적산가옥 집, 탕자나무 집, 대추나무 집, 이층 양옥집, 우체통 집...

그런데 뜻밖의 풍경과 맞닥뜨렸다. 하천을 그대로 남긴 채 한쪽 옆으로 옹벽을 쌓고 다다다 집들이 들어선 것이다. 마치 개천이 집을 들어 올린 현대판 수상가옥처럼 보인다. 좁은 강 다리를 건너야 집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이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아파트로 떠나고 토박이 노인들만 남았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편견일까. 헤드셋을 머리에 얹은 소년이 쪽문을 열고 나온다. 낯선 이방인의 호기심도 이미 익숙해졌다는 눈빛이다. 소년의 뒷모습에서 생각의 끝은 언젠가 가보았던 여행길에 다다른다. 파삭한 눈망울이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까 봐 마주치기조차 어려웠던 캄보디아 톤레삽 호수의 아이들, 고무통을 타고 물놀이를 하다가도 부지깽이 같은 팔을 흔들며 환하게 웃던 수상촌 아이들의 순한 얼굴과 겹친다.

집으로 가는 다리를 걸어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본다. 영킨 전선이 머리 위로 지나가고 담장 위로 널린 빨래들이 주인을 대신해 봄바람에 펄럭인다. 얼룩진 석벽 중간중간에 맑은 유리창이 붙어있다. 어떤 집은 작은 화분으로 눈가림을 해두었고 어떤 집은 활짝 열어 속을 드러내었다. 고만고만한 담벼락 앞에도 흙 채운 붉은 고무통이 즐비하다. 속을 들여

다보니 쪽파와 상추와 봄동배추가 황매화와 동백 화분 사이로 키를 키웠다. 귀한 생명들이다. 뿌리 내린 곳에서는 기꺼이 버티고 살아내야 하리라.

골목이라고 모두 퀴퀴하고 암울하기만 할까. 현대 골목은 급격하게 변신하고 있다. 무채색의 벽들은 연두 초록 분홍 노랑 파란색 등 각자의 색깔을 내고, 구도심의 골목은 역사와 문화를 재생시키고 스토리를 입히며, 각종 페스티벌과 야행 축제를 개최하여 의미 있는 장소 만들기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기에 예쁜 카페들이 문을 열고 아담하고 소박한 빵집과 밥집과 책방과 옷집도 감성을 더하여 손님을 맞는다. 한때 유명 세프가 출연한 골목식당도 같은 이유였겠다. 그러한 골목길은 입소문과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번져간다. 부산만 하더라도 해운대역 뒤의 해리단길, 미포바다 앞 청리단길, 전포동 전리단길, 망미동의 망리단길, 사상의 덕리단길 등이 핫 플레이스라는 명칭을 얻어 골목 투어를 하고 골목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멋진 카페 거리나 골목 맛집으로 북적이는 거리가 아닌, 여전히 삶을 가꾸고 생을 지켜내는 골목도 아직 남아 있다. 집이 안이고 골목이 바깥이라는 사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하늘미루길. 돛자리 하나만 깔면 골목 거실이라 이름 붙여도 좋을 온기가 남은 곳. 이곳도 어떤 이에게는 가슴 뛰던 옛사랑의 길이었는데도 모른다. 이 길을 벗어나면 반듯한 도로가 나오겠지만, 태생이 깡춘이라 그런지 나는 후미지고 구부러지고 옆구리가 울퉁불퉁 불거져 나온 좁은 골목길이 좋다. 큰길은 함부로 건널 수도 없고 마음대로 걷지도 못한다. 그러나 골목길은 휘어져 여유롭고 느려서 편안하다. 무엇보다 막다른 골목 앞에서 울어본 사람들과 골목길처럼 굴곡진 삶을 살아온 자들을 닮은 길이니까.

구불구불 곡선의 길을 뒤돌아본다. 젊은 내가 밤비를 맞으며 어두운 골목길을 종종 벗어나고 있다.

글사진_김정화 수필가





작은 세계를 만들어내는

조각가 전준석

- 개인전 11회, 단체전 다수
- 부산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
KNN 디오라마월드 전시관 대표 역임 외
- 현) 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회원

기차가 달린다. 이내 자유의 여신상과 피사의 사탑, 피라미드가 펼쳐진다. 지리적 경계는 물론 낮과 밤이라는 시간적 제약마저 뛰어넘어 달리는 기차길 주변에는 산과 들을 배경으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아간다. 조각가 전준석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세계, 디오라마 월드다. 그의 경험과 예술관을 들으며 고정관념이라는 ‘알’을 깨다.

디오라마Diorama에 관한 한 전준석 작가는 선구자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니어처Miniature가 하나의 작은 모형이라면 그것을 적절히 배치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디오라마로, 실제 건물이나 환경을 있는 그대로 축소할 뿐인 파노라마Panorama와는 차이가 크다. 작가는 디오라마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우리나라에서 이를 시작하고 ‘디오라마 월드’(해운대 센텀시티 월석아트홀, 2015~2018)라는 상설 전시장까지 성사시킨 인물이다. 그가 창조한 디오

라마의 매력은 실제로 보면 배가 된다. 손바닥보다 작은 모형들의 디테일에 감탄하고 나면 하나의 ‘세계’를 이룬 스케일에 놀라게 된다. 보다 자세히 관찰한 사람이라면 현실적이되 현실 그대로가 아닌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창조된 세계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가 디오라마를 접한 건 1999년 전공인 미술 공부를 위해 찾은 독일에서다. 그곳에서 당시 기준 150년 역사를 가진 철도 및 기차 디오라마를 접했고 이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장르로 와닿았다. 낯선 조형 언어를 발견한 그는 그대로 귀국했고 관련 문화가 발달한 일본 등을 통해 공부하며 자신만의 디오라마 창작에 몰두하게 됐다. 그는 ‘전세계 개인 소장 디오라마 보유 개수 1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해외에선 비싼 가격 탓에 기업 후원의 영역인 디오라마를, 누구의 후원도 없이 만들고 소장한다는 점에서 더 대단한 기록

이다. 창작에 있어 비싸든 저렴하든 재료를 가리지 않고, 구할 수 없는 소품은 직접 만들어내는 조각가이기에 가능하기도 할 것이다.

“어떤 조각을 하고 무슨 색깔을 입힐지, 구도는 어떻게 연출하며 배경과 조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걸 구상해서 만드니 회화, 조각, 음향, 영상이 다 들어가는 종합예술이 됩니다.”

일견 자연스레 펼쳐진 세상이지만 계곡물이 흐르는 방향 하나에도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일부러 먼지가 쌓이게 한 뒤 씻어내고 붓질하는 걸 반복해 실제 현실처럼 만드는 건 단지 ‘깨끗하고 예쁘지만 한 것은 기성품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서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새 기차에도 부러 먼지를 앉히는 식이다.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전선 역시 깔끔하게 숨길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건전지가 아닌 전기라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임을 보이는 한편 ‘저 전선은 뭘까’하고 관찰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후자는 전준석 작가의 디오라마를 관람하는 데 있어 주요한 포인트다. 그는 이야기가 있는 세상을 관람하는 사람들 또한 ‘먼지가 있는 걸 보니 청소를 안 했나?’ ‘본드 자국이 그대로 있는데 나도 만들 수 있겠다!’라며 이야기를 만들어내길 원한다. ‘손맛’이 나와 작품의 숨구멍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실제 도면을 참고해 건축 양식과 파손 위치까지 정확히 구현한 ‘컬로세움’을 만들었던 때과 달리 지금은 누가 봐도 무엇인지만 알면 될 뿐 그 외엔 상상력의 영역으로 남긴다. 브라질의 리우 예수상이 있는 배경은 해운대고, 진시황의 병마총 주위를 실재론 없는 기차가 돌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축소된 모형 안에 세상과 인간사를 담아낸 것처럼 그 속에는 작가의 예술관도 담겨 있다. 그가 생각하는 예술가는 교



육자나 작가와는 다르다. 자신만의 생각과 철학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일반인들이 보거나 듣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예술가라고 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독일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일을 배워왔다고 말한다. 마을에서 열린 벼룩시장에서 구멍 난 신발 한 짝을 판매대 위에 올려놓고는 사갈 거면 사가라, 능청스레 말한 사람의 의도는 그저 웃음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런 생활 속 유머에 더불어 일본에서 배운 ‘장인정신’은 오늘날 그의 작품에 영향을 끼쳐 꾸준히 오랫동안, 즐거운 이야기가 있는 작은 세상 만들기를 해내게 했다.

‘본캐’라 할 수 있는 조각가로서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과 병원, 빌딩, 김천 예술의전당 등에 설치한 각종 대형 조형물 작업과 ‘시간과 공간’ 등을 주제로 한 개념 미술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그다. 27여 년 전 책에 못을 박은 작품으로 타인의 삶, 타인의 지침서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데에 이어 평범한 대리석을 이용해 인지에 따른 시간의 상대성을 구상한 작품 등 남다른 발상의 작품이 많다. 작년 3월 김해에 문을 연 디오라마 카페를 통해 작품 세계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면서 인도 타지마할 제작도 준비 중이라 매일이 바쁘다. 그런 와중에도 작품 구상에 여념이 없는 그에게선 스스로 세운 예술관이 그대로 묻어난다.

클_이효민

끝없는 내적표현으로 작품의 지평을 넓히다

화가

김응기

- 개인전 16회(1979~2023),
단체전 200여 회
- 제9회 부산미술대전 우수상,
제2회 부산청년미술상,
제8회 송혜수미술상 수상
- 전) 부산미술협회 부이사장
현) 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부산현대작가협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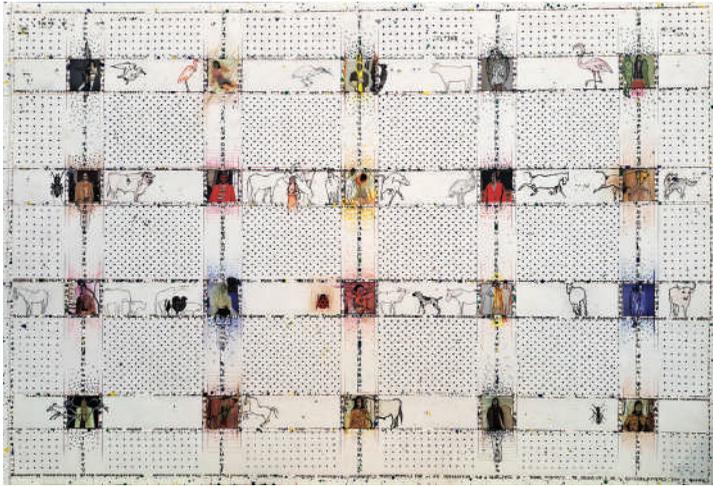


인쇄된 활자며 사진을 지우고 긁어내 원초적인 상태로 되돌려 버린 작품을 기억한다면 꽃과 같은 자연물을 담은 회화 작품을 언뜻 봐선 그의 그림이라 생각지 못할 수도 있겠다.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텍스트의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의미를 지움으로써 생성해낸 메시지, 자연물 그대로의 서정적인 아름다움과 해석을 요하지 않지만 해석하게 하는 작품의 요소들은 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술적 표현에 대한 끝없는 욕구로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해나갈 뿐이라는 김응기 선생을 만났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순수한 자연을 간직해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도 불리는 경북 봉화로, 첩첩산중 시골에 살던 어린 날 교실 뒤편 게시판에 그림이 걸리곤 했던 먼 기억이 있다. 그림에 관심이 있는 소년이던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 와서, 당시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서예가 고천(古泉) 배재식 선생을 담임으로 만나고 그 인연으로

서에 대회를 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막연하게 화가라는 꿈을 꾸던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술반에 들어가고 선배를 따라 송혜수 화실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다.

남들보다 조금 빨리 대학교에 들어간 터라 '데뷔전'도 빨랐다. 전통적인 구상 회화가 주류이던 시절, 1970년대 중반 미술계에 불어온 일종의 '현대미술 운동'은 그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단순한 '재현'이 아닌 사람의 정신세계가 반영된 새로운 미술을 찾게 한 것이다. 그렇게 1976년 '제1회 부산현대미술제'에서 골판지 상자의 글자를 긁은 선으로 그은 작품을 통해 유명한 「메모」 연작의 시작을 선보이게 된다. 당시 작가노트에 밝힌 바와 같이 시작은 우연한 마주침과 관찰이었다. 물리적인 것(구겨져 버려진 종이)이 자연적으로 벌어지며 퍼지는 움직임과 소리가 주위 사물에 관심을 갖게 하는 영감이 된 것이다. 작품에 대해 여러 평론가들이 짚은 부분은 그



메모_종이 위에 혼합재료, 99×68cm, 2023



꽃_캔버스에 유채, 100F, 2022~3

의 '언어에 대한 부정' 의미를 비워내는 행동'은 인쇄물로 대변된 권력의 해체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냥 있는 존재 그대로를 만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내포한 '개념'을 말하고자 하는 작품 경향과 어떠한 강요를 거부하는 태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의지는 그의 본령인 듯 다른 형태의 작품 활동에서도 이어지게 된다.

일견 무미無美한 작품세계에서도 어린 날 서예를 배운 영향인지 배열된 글자 자체의 시각적 미학을 살렸으나 그럼에도 지극히 이성적이고 건조한 작품에 반하는 새로운 작품 창작에 대한 열망은 '꽃'이라는 자연물을 캔버스에 담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 작품을 발전·변화시켜 나가길 기대했으니 부담감이 없잖아 있었으리라. 하지만 그는 세평에 좌지우지 되기보다 '재밌는 작업'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확고한 마음으로 2009년 꽃 작업을 발표했다. 최근작은 또 다르다. 꽃의 형상에 사람과 동물, 문자와 기호 등 복합 이미지를 추가해 재구성한 작품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이던 「메모」와 「꽃에 대하여」 두 작품세계가 만나 상승효과를 만들어낸 듯하다. 같은 자연물이라도 창작자만의 '냄새'가 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려낸 꽃, 잡지 등에서 따온 무작위 인물 이미지, 배치와 구도의 연결성을 위해 삽입한 텍스트 등이 만나

어딘지 신비롭고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했다. 작품을 자꾸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함정'에 빠지려 할 때 문득 그의 초기작을 떠올려 본다. 그저 순수하게 작품을 감상하는 것의 어려움 속에서 감상자는 의미의 전복을 느낀다. 앞서 초기작이 정보의 강요를 거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 의지 같은 걸 보였다고 했는데 또 굳이 애써 해석을 찾게 하니 말이다.

50년 가까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 시간과 업무에 얽매인 교사로 일한 20대 시절 몇 년이 유일하게 힘든 때였다니 예술가가 천직이랄 밖에. 그는 나이에 따라,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며 그것이 작가에게 내재되어 있다가 예술적 영감과 만나 밖으로 나오고 이내 작품이 된다고 말한다. 작년에 완공된 30평 규모 작업실에서 마치 스스로 숙제를 내주듯 작업을 하는 건 영감의 실마리가 끊이지 않게 하려는, 그리고 작품의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함이다. "매년 해가 바뀌어도 계속 그림을 그릴 것 같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소박하지만, 그만의 명확한 작품세계는 그가 표현해낼 다음 작품을 궁급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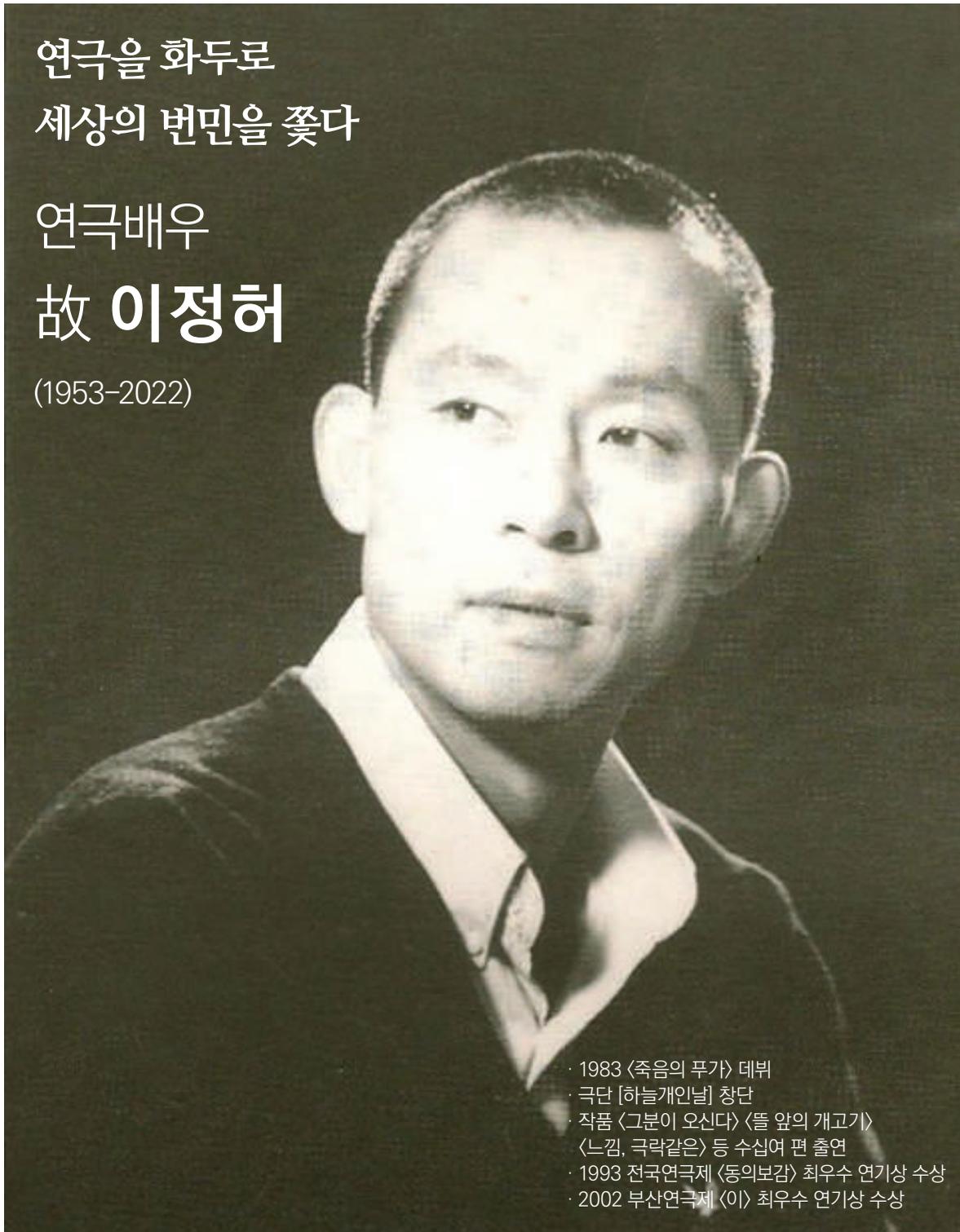
글_이호민

연극을 화두로
세상의 변민을 쫓다

연극배우

故 이정허

(1953-2022)



- 1983 <죽음의 무가> 데뷔
- 극단 [하늘개인날] 창단
- 작품 <그분이 오신다> <뜰 앞의 개고기>
<느낌, 극락같은> 등 수십여 편 출연
- 1993 전국연극제 <동의보감> 최우수 연기상 수상
- 2002 부산연극제 <이> 최우수 연기상 수상

하늘개인날, 홀연히 사라지다

2022년 10월 27일.

어찌 보면 나고 죽는 것은 하늘의 뜬구름처럼 덧없다. 극단 [하늘개인날]의 창단 주역이면서 정신적 지주였던 배우 이정희 스님(속명 이용재)은 [하늘개인날]에서 홀연히 사라졌다. 법랍 41세, 속세 나이로는 만 70세였다. 자신이 폐암에 걸렸던 사실을 연극 바닥엔 쉬쉬 알리지 않은 채 투병하다가 이 시리도록 푸른 가을에 홀연히 왔던 그곳으로 다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잠깐 일었다 흩어지는 뜬구름 같은 짧은 시간이었다.

이정희는 연극배우이면서 승려 시인이었다. 연극 작업이 없을 때는 심산유곡 산사에서 불도를 닦다가, 작품 속 역할을 맡으면 속세로 내려와 또 다른 허구적 인생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이는 이중생활을 한 셈이다. 승려 생활 초기에는 불도에 전념하지 않는 그의 파격을 동료 스님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연극이 또 하나의 화두인 것을 알고부터는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언론사와의 어느 인터뷰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연극 그 자체는 진실하다. 승려들은 특정 화두를 들고 잡념을 쫓아내지만, 나는 연극을 화두로 삼고 세상의 번민을 쫓아낸다. 연극을 통해 순수를 얻을 수 있다.”

연극배우 이정희의 삶은 직선적인 그의 평소 성격처럼 단순 명쾌했다. 출가하게 된 것이나 연극배우가 된 것 역시 즉흥적이었다. 군 제대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글쓰기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해 범어사 금강암에서 묵게 되었다. 그러다 벽파 스님을 스승으로 1981년에 출가했다. 그러던 중 1986년 가마골 소극장 창단 공연인 <푸가>, <히바쿠사>에 연이어 출연하게 되면서 연극계에 입문했다. 딱히 연극과 관련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가 문예창작과로 전과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장편 에세



작품 <원호대사>

이 『떠도는 문서 나의 역마살』(1987), 그리고 이후에 낸 몇 권의 시집 등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그의 이력이다. 여하튼 그는 승려 생활을 하면서 연극에 투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와 가마골 소극장에서 연극을 함께 했던 연출가 이성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가마골 창단 공연이 끝나고 난 뒤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 질펀하게 술을 마신 적이 있었죠. 며칠 뒤 소극장에 갔다가 정희 스님이 흐느끼고 있는 것을 우연히 봤어요. 아마 승려 신분으로 속세에서 질펀하게 즐긴 자신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불쑥 솟구쳤던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나까지 울컥해지더군요.”

그의 심사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왜 그렇지 않았겠는가. 산사에서 면벽 수도하며 부처의 진리를 깨달아야 할 초입 승려가 연극판에 뛰어 들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파격이나 다름없다. 거기다 욕망의 들끓음 속에서 술 마시고 춤까지 추며 질펀하게 놀았으니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다. 그가 흘린 눈물은 일종의 회개였다.

1987년 무렵이었다. 그는 극단 [부산 레퍼토리 시스템]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인 <내마>에 객원 배우로 출연하게 되었다. 함께 객원 배우로 출연했던 권철과 연습을 끝내고 돌

아가던 중 온천천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잔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이정히는 불쾌한 얼굴로 “우리, 배우들만을 위한 극단 하나 만들면 어떨까?”하고 엉뚱한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이듬해인 1988년에 이정희, 권철, 최성락 등이 기투함하여 극단 [하늘개인날]을 창단하게 되면서, 배우 이정희의 탄탄대로가 펼쳐지게 된다.

연기의 정점을 찍으며 승승장구하다

배우 이정히는 극단 창단의 주역이었고 정신적 지주였으며 후원자였다. 그를 믿고 따르던 보살들의 후원은 든든한 스폰서 역할이 되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금정산 자락의 포교당에 극단 사무실 겸 연습장이 마련되면서 연출가 곽종필, 무대 디자이너 김인덕과 김유리라, 배우 김우진, 의사 원경식 등이 극단에 합류했다. 창해에 뜬 뚝단배가 순풍을 만난 격이었다. 올라지는 무대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동의보감」(1993), 「우리들의 광시곡」(1995), 「느낌, 극락 같은」(1999), 「이」(2000) 등의 레퍼토리는 극단이 부산연극사에 정점을 찍고, 그리고 극단의 이름을 전국에 널리 알리게 하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이 작품들은 부산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아 전국연극제에 부산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

「동의보감」은 이정희의 직선적인 성격과 작가적 고집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이은성의 장편소설 「동의보감」은 베스트셀러로 ‘낙양의 지가’를 올리고 있던 때였다. 배우 이정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자신의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 희곡으로 각색했다. 그런데 원작 소설은 허준이 중심인물로 서사를 이끌어가는 구조였지만, 희곡은 허준이 서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주인공은 허준의 스승인 유의태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정히는 유의태가 자신의 적역일 것을 내정한 가운데 그를 중심인물로 설정해 각색한 것이다. 그런데 연출자인 손기룡과 의견 대립이 생겼다. 동의보감하

면 허준일 정도로 모두들 알고 있는데 유의태가 웬 말이나며 버렸고, 각색자인 이정히는 ‘스승 없는 제자가 어디 있느냐’며 한 치도 물러섬이 없었다는 것이다.

작가 이정희의 작가적 상상력은 적중했다. 부산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은 것은 물론 유의태 역할을 단단하게 소화한 이정히는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전국연극제에 참가해서도 이정히는 이 작품으로 연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처럼 그는 위기나 중대 국면에서는 쾌도난마의 직선적인 성격과 고집으로 일관했다. 자신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면 옆구리에 칼이 들어와도 물러섬이 없었다. 이런 직선적인 성격과 고집은 어떤 때는 추진력이 되었지만, 극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독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 때문에 연출과 배우의 두 중심인물이 퇴진과 재기용을 번갈아 교체되면서 극단의 운영과 공연이 한때 차질을 빚으며 쇠락의 길을 걷기도 했다. 그의 그러한 성격은 승려 생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인간관계가 소원하니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정희의 고집과 결단이 원인의 한 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낳았다. 그런데 그가 홀연히 사라졌으니 극단의 든든한 허리가 끊어진 셈이다. 극단 쇠락은 롤러코스터를 탄 거나 마찬가지로 주위의 걱정 또한 당연한 생각이니, 배우 이정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적막강산이 되니 그가 그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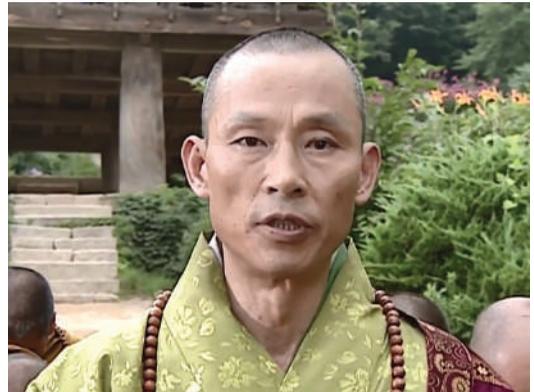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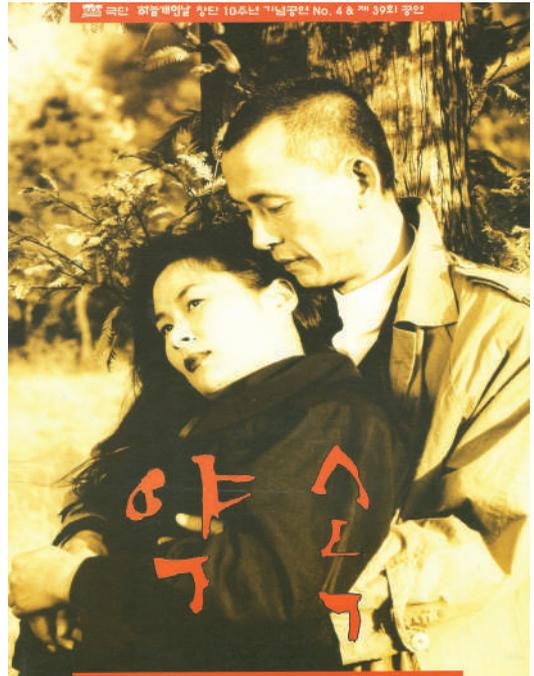
극단이 쇠락의 길을 걷자 배우 이정희를 무대 위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뜸해졌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이 속해 있는 극단이 아니고서는 선뜻 출연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만큼 자신의 활동 터전이 되는 극단을 아끼고 사랑했다. 그는 연극의 정도를 걷지 않는 단원들에게는 서릿발 같은 죽비를 내려치다가도,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일에는 큰 보탬을 주기도 했다. 단원들의 해외여행에도 큰 돈을 쾌척했고, 개인 여행에도 노잣돈에 보태라고 얼마씩을

줘어주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추상 같은 서릿발의 꾸깃음, 직선적인 성정과 고집, 그러면서도 따스한 속내를 지닌 사람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연극인에게 그가 특, 한 마디 던지는 짧은 말도 두 고두고 곱씹어 보면 따스함과 진정의 온기가 여백처럼 다가왔다.

극단 [하늘개인날]은 전국연극제에서 연거푸 두 번이나 최우수 작품상인 대통령상을 거머쥐어 부산연극의 저력을 알렸다. 그렇게 극단이 작품성의 정점을 찍은 것은 탁월한 연출력과 배우들의 열정도 있었지만, 극단의 중심추로 무게중심을 잡아준 이정희의 말 없는 카리스마가 크게 작용했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작품 선택이나 배우의 역할 배정, 든든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단단한 울타리로 외풍을 막아준 이정희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탓인지 그의 승려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범어사 금강암, 두 번의 포교당 전전, 그리고 대구 백림사 은거 등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부산 연극인들에게 자신의 발병을 알리지 않았던 것도 연극인들의 심사를 어지럽히지 않으려는 그의 잔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배우 이정희의 마지막 작품은 필자의 작품인 「그분이 오신다」(2012)였을 것으로 기억이 된다. 작품 속의 역할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그가 참 쓸쓸하게 보였다. 작품 속에서도, 작품 밖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적막하게 느껴졌다. 그가 이승을 떠난 지 벌써 6개월째 접어든다. 그가 없는 부산연극은 조금 적막하다는 생각이 든다. 연극배우로서의 그는 조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시와 수필을 쓰는 문학인으로, 부처의 진리를 깨우치는 승려로 살았으니 배우로서도 그는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는 내공이 탄탄한 배우였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동백이 특, 특 온몸으로 몸져눅는 계절이다. 배우 이정희의 부재를 떠올리니 몸져누운 동백꽃이 더 처연하게 느껴진다. 동백꽃 떨어진 모습이 꼭 그의 죽음처럼 덧없이 여겨진다. 그가 떠난 부산연극판은 적막강산이다. 툭툭 지는 동백꽃을 바라보며 그의 타계를 애도한다. 어딘가 세상 한 귀퉁이도 푸슬푸슬 무너지고 있을 것이다. 빨강계 드러누운 동백꽃의 모습에서 연극에의 열정이 뜨거웠던 배우 이정희를 떠올려 본다. 그는 비록



KBS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부석사 주지로 출연(blog.naver.com/heavygun112)

떠났지만 그가 남긴 작품은 형형한 기억으로 살아 있다. 그가 남긴 따스한 속내도 적막한 연극판을 덮히는 온기가 될 것이다. 배우이며 승려였던 이정희의 기억은 언제나 잔향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잘 가시게 정희 스님. 나무관세음보살.

글_김문홍 극작가, 연극평론가

No. 16

벚꽃의 이름으로

서문희

거미 오고야 말았네

겨울 고슴달 같은 그는 미등조차 없는데

천지간에 연분홍 꽃바람이 물속 불어닥쳤네

바스르질 듯 루석한 마음에

꽃으로 화려르 피어오른 옛사랑의 열병

야윈 새벽별처럼 절삭된 언어들이

면벽한 그대 마른 등을 어루만지네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검불의 몸으로 걸어 오라고

꽃잎, 소리 없이 쏟아져 내 발등 적시네

하늘이 도는 어질머리

멀미처럼 피었다 지고 나면

흐드러진 아픔도 화사하게 스러지려나

이 세상 어딘가에 고사목 같은 그대 있어

거미 오고야 말았네

봄은, 벚꽃의 이름으로

작가노트 | 사람이 떠나듯, 꽃이 지듯, 모든 것은 흐른다.

이 불변의 진리가 허무와 위안을 준다.

글_서문희 월간 『문학도시』 편집장 지냄, 현 『문학중심』 『은가람문학』 편집장

RE: VIEW

- 무용** 다 함께 향유하는 전막 발레를 위하여
부산시티발레단 <돈키호테>_노영재
- 미술** 천천히 살아가자, 마치 달빛 아래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변대용 작가 <Slow Life-달빛 산책>_권오혁
- 연극** 문학작품 같은 한 편의 무대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_김민수
- 연극**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 그녀들은 장춘長春에서
아직도 오지 않는 봄을 기다리고 있다
제41회 부산연극제 개막작 <1945>_김남석

다 함께 향유하는 전막 발레를 위하여 부산시티발레단 <돈키호테>

글_노영재 춤비평가

지난 3월 24, 25일 양일간 박헌주 단장이 이끄는 부산시티발레단의 <돈키호테>가 금정문화회관과 공동주체로 무대에 올랐다. 미겔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모티브로 한 발레 <돈키호테>는 클래식 작품 중에서도 오랜 역사를 지닌 전막 발레 중 하나이다. 저명한 소설 덕분에 대중에게 발레는 익숙한 제목으로 읽히지만, 이 거장의 소설과 발레 대본의 연관성이나 발레 작품만이 지닌 매력은 그리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다.

1740년 초연된 <돈키호테>는 오스트리아 안무가 힐베르딩 Franz Hilverding에 의해 무대에 올랐으며, 이후 19세기와 20세기 러시아 안무가들의 꾸준한 수정과 보완을 통해 전막 발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발레가 러시아에서 활발히 개작되며 인기를 얻은 이유는 환경적 요인이라는 해석도 전해진다. 다름 아닌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는 모스크바인들에게 작열하는 스페인의 태양과 열정적인 분위기를 담은 오렌지색 무대는 일종의 정신적 해방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화려한 춤 테크닉과 극적인 재미를 더해 확장된 발레는 장편 소설의 줄거리를 차용했다기 보다는 환상에 취한 돈키호테를 상징적으로 두고, 그의 여정에서 만나는 두 연인, 바질과 키트리와 좌충우돌 로맨스가 내용의 주를 이룬다. 바르셀로나를 배경으로 스페인의 정취를 극 전반에 적극 활용한 발레 <돈키호테>는 '사랑과 배신'이라는 비극적 멜로드라마가 대세인 클래식 발레에서 밝고 코믹한 내용을 담은 큰 성

공을 거둔 발레로 역사적 존재감이 뚜렷하며 오늘날까지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번에 공연된 부산시티발레단 <돈키호테>는 원작을 바탕으로 박헌주 단장이 재안무한 것이며, 원작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작품은 다소 축소되었지만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단절되지 않았고, 투우사의 춤, 돈키호테의 꿈, 결혼식 등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주역과 솔리스트들의 주요 장면들을 무리없이 배치함으로써 원작이 갖춘 매력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전통적인 클래식 기교뿐만 아니라 스페인 민속춤 스텝과 리듬의 조화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작품의 특성상 발레의 난이도는 한층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전막에 걸쳐 안정적으로 시연되는 주역들의 춤과 연기는 고전의 진수를 즐기기에 손색이 없었다.

바질과 키트리가 경쟁하게 사랑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의 재미가 더욱 고조되는 이유로는 함께하는 캐릭터들의 연기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배회하는 돈키호테와 산초판자, 키트리의 아버지 로렌조와 부자 귀족 가마쉬의 마임과 연기는 작품 본연의 코믹한 정서를 무리없이 재현해주었다. 2막 '돈키호테의 꿈' 장면은 고전주의 발레의 전형적 형식 중 하나인 '코르 드 발레Corps de ballet'¹⁾와 '바리에이션Variation'²⁾이 유명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박 단장은 지역 유소년 무용수들을 코르 드 발레로 활용하였는데, 이들은 관례처럼 구색을 갖춘 참여의 의미가 아닌 필수적인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동작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하려는 섬



세함과 진지함을 보여주었다.

전막 발레는 최소 2시간 이상의 러닝 타임에 화려한 무대 세트 연출이 필수이기에 지역에 기반을 둔 민간발레단이 무대에 올리기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연출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은 물론이거니와 수십 명의 안정적인 기량을 지닌 무용수를 확보하는 것 또한 지역 내에선 힘들기 때문이다. 과거 이러한 연유로 작품은 지나치게 축소되고 단순한 전막 발레의 무대화를 시도한 점에 의의를 두거나 출연진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공연은 관객들의 기억에서 쉽게 사라지기 마련이다. 긴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클래식 발레의 전막을 무대에 올리는 안이함에 대한 비판은 늘 존재했다.

이번 <돈키호테> 공연은 클래식 발레의 고전적 미학을 충실히 재현하고자 한 박헌주 단장의 고민과 노력이 보였기에 과거의 답습과는 몇 가지 점에서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된다. 먼저 하이라이트를 중심으로 한 재안무는 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가장 적절한 부분을 매끄럽게 구성함으로써 전막의 구조와 내용을 해치지 않은 점이 높이 평가된다. 또한, 서울 직업 발레단 출신의 객원 무용수를 주역으로 캐스팅하는 것은 지역 발레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택이지만 이것이 종종 비판받았던 이유는 바로 조화의 부재이다. 주역을 제외한 많은 부분이 부실함으로써 작품의 전체적인 조화를 해친다는 의미이다. 클래식 발레의 묘미인 화려한 스

케일은 주역의 현란한 기교나 다양한 무대 세트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많은 부분의 협업을 통해 스케일에 상응하는 춤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돈키호테>는 고난도의 테크닉을 보여줘야 하는 주역 무용수들과 함께 하는 솔리스트, 코르 드 발레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자칫 안이하게 다가가기 쉬운 캐릭터 연기의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조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본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현대적인 감각(협한, 제즈)을 가미하였다는 작품 의도는 이날 공연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에서 굳이 공연 프로그램에 명시해야 했었느냐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이 공연은 현대적인 <돈키호테>라기 보다는 원작을 잘 압축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춤 비평계에서는 여러 춤 장르 중 발레는 대중과 친숙하지만, 예술가의 열정만으로는 흥행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 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이번 금정문화회관과의 공동주최를 통해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 관객의 유치에 힘을 쏟은 점은 바람직한 행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부산시티발레단이 양질의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클래식 발레의 묘미를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 고전주의 발레에서 군무를 뜻하는 말로 질서정연한 기하학적 대형 변화로 작품의 정경을 만들고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 2) 남녀 주역 혹은 솔리스트가 행하는 1인무를 의미하며 무용수 개개인의 뛰어난 기량을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천천히 살아가자, 마치 달빛 아래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변대용 작가 〈Slow Life-달빛 산책〉

글_권오혁 아티멘션 대표

갤러리조이에서 조각가 변대용 작가의 기획초대전(2023. 3. 11. ~ 2023. 4. 23.)이 열렸다. 'Slow Life-달빛 산책'이라는 주제로 37점의 작품을 전시한 이번 전시에는 조각작품 외 평면작품(부조)이 많았다. 액자의 프레임을 활용해 공간이 아닌 여백으로 작품의 여운을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것 같았다. 여백은 단순한 색감이지만 그 대비와 조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부조 너머의 다양한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든다.

칠후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과 대화를 하게 된다. 그때 떠오르는 둥근 달(달과 곰)은 태양을 반사하는 달빛이 되어 내가 주인공으로 있는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달빛은 오직 나에게 그 빛을 모아주고 나는 그 빛 아래를 거닐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사색에 잠긴다. 사색에 잠긴 작은 한 걸음은 대화마저 고요하게 만든다. 그렇게 달빛은 나의 산책을 몽환적이면서도 아주 잔잔하게 이끌어 간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산책을 즐기는가? 바쁜 일상을 고이 접어놓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오직 자신하고만 대화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은 여유 그 이상의 힐링을 안겨다 준다. 그 시간은 고요하면서도 아주 천천히 흘러간다. 달빛 속에서 산책하는 나의 발걸음처럼. 이처럼 작가는 'Slow Life'라는 전시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바쁘고, 빠르고, 시끄럽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마치 달빛 아래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천천히 사는 삶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변대용 작가의 조각에서는 날카로운 선을 찾아볼 수 없다. 부드럽게 연결되는 둥근 선과 미끄러질 듯 매끈한 표면, 파스텔톤의 색으로 관람객에게 편안함과 차분함을 안겨 준다. 전시된 작품에서 북극곰 외에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찾아볼 수 있다. 곰의 손과 머리에 올라가 있는 둥그란 조형물, 나무, 모자, 가방, 사과, 배, 컵, 글러브 등은 곰의 움직임을 유추시키는 재미난 상상의 도구가 된다. 평면작품과 달리 입체작품은 가로, 세로, 폭으로 되어있다. 이번에 전시된 입체작품 중 폭을 왜곡시켜 얇게 만든 작품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는 변형을 통해 공간의 한계를 새롭게 재해석한 것 같았다. 이러한 재해석이 결국 조각을 액자 틀 속으로 넣어버리는 부조 작품으로까지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조형물이라 하면 공간이 주는 재미가 있다. 'Green bears'라는 작품은 공간을 가지고 노는 작가의 뛰어난 표현력이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넓은 전시장에 이 한 작품만 전시되어 있는데, 결코 전시장이 행하거나 비어 보이지 않는다. 조형물의 좌대는 북극의 빙하 같아 보이고 갤러리의 바닥은 작품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어 마치 차가운 북극해를 연상케 했다. 이는 북극곰이 빙하 위를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북극해에 비치는 것 같았다. 작품이 공간에 놓일 때 어떻게 연출해 놓는지에 따라 표현되는 효과는 관람객에게 매우 크게 다가온다. 이는 관람객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작품에서 나오는 오라¹⁾는 웅장함이 되어 공간을 가득 채운다.



산책_포맥스, FRP, 우레탄 페인트, 50×75×7cm, 2023



Green bears_포맥스, FRP, 우레탄 페인트, 140×45×90(H)cm, 55×20×42(H)cm, 2022

아기곰이 어른 곰을 등에 업고 가는 작품¹⁾(산책)은 유독 마음에 들어왔다. 걸음마는 언제 뺏을까 싶지만, 아기곰의 걸음걸이는 제법 험차고 씩씩해 보인다. “아빠, 엄마 내가 커서 효도할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예쁜 마음은 효심이 되어 부모를 웃음 짓게 한다. 어찌 보면 등에 있는 어른 곰은 아기곰의 어린 시절 꿈과 같다. 변대용 작가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행복했던 날들을 기억나게 한다. 꿈을 상상하고 옛 추억들이 떠오르듯 작품을 통해 힐링을 경험하게 한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제작된 부조작품은 관람객의 상상력으로 재미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찾아 떠나는 아기곰, 복싱하는 곰, 코스프레하는 곰, 아이스크림 통을 싸는 아기곰 등 부조작품의 여백을 관람객의 상상력으로 가득 채워가도록 작가가 허락한 것처럼 느껴졌다.

변대용 작가는 “아이스크림을 머리에 이고, 들고, 굴리며 놓고 있는 천진한 아기곰들은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개체의 존재 자체만으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전달하였다. 이와 동시에 “멸종위기에 있는 북극곰을 통해 위기에 처한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관람객에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한다. 이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대인을 메타포Metaphor하여 슬픈 현실을 우화적으로 풀어낸 것으로도 읽힌다. 작가에게 있어 북극곰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는 매개체이다. 또한 북극곰의 의인화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투영한 것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잠시나마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던 작가의 말처럼 이번 ‘Slow Life’전은 힘들게 앞만 보고 달려온 현대인의 몸과 마음에 달빛 속 산책과도 같은 쉼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1) Aura. 예술 작품에서 느껴지는 고상하고 독특한 분위기. 또는 독특한 품위나 품격.

문학작품 같은 한 편의 무대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

글_김민수 극작가

느린 호흡의 연극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최인훈 작, 전상배 연출, 러닝타임 155분(인터미션포함), 공간소극장, 2023. 4. 5. ~ 4. 15.)는 소설 「광장」으로 유명한 최인훈이 남긴 6편의 희곡 중 하나로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명의 원작을 무대에 올린 것이다. 널리 알려지고 작품성을 높이 인정받는 희곡이 무대에 오르면 원작과 연출의 해석 사이에서 무게 중심의 차를 가늠해 보게 된다. 이번 연극은 연출의 창의적 해석적인 무대 구현보다는 원작 희곡의 충실한 재현에 보다 더 방점이 찍힌 작품으로 보인다.

애기 장수 설화

희곡은 작가가 밝힌 것처럼 평북 지역의 전설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전승되는 '애기 장수 설화'를 원화로 하고 있다. 애기 장수 설화의 기본 플롯은 '세상을 구원할 영웅인 애기 장수가 태어나지만, 이는 나라의 반역이 되어 멸문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영웅으로 자라기 전 부모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단순구조의 비극적 서사다. 최인훈의 희곡은 이에 메시아적 구원의 의미를 더했다. 등장인물들의 캐릭터, 44조의 우리 전통 시가(詩歌) 운율을 따 온 노랫말 등 세부적인 내용 구성도 알차며, 은유와 상징이 가득하다.

눈 내리는 겨울

막이 오르기 전 어둠 속에서 늑대 소리인 듯, 바람 소리인 듯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린다. 무대가 밝아오면 소리의 실체가 드러난다. 검은 도둑고양이처럼 무대를 에워싸듯이 어

슬렁거리는 배우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다. 불안과 공포가 존재하는 극 중 현실과 인물의 불안한 심리적 내면을 직관적 시각화로 구현한 오프닝이다.

무대는 시대를 가늠할 수 없는 힘없고 가난한 백성의 살풍경한 방을 중심으로, 한겨울에서 진달래꽃이 피는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달이 찬 아내(최현정 분)는 양식이 될 씨앗을 구하러 나간 남편을 기다린다. 남편(조정우 분)이 지계에 씨앗으로 쓸 곡식인 조와 콩 두 자루를 엮고 집으로 돌아온다. 눈발을 힘겹게 걸어오는 남편의 발걸음은 느리고 느리다. 느리고 느린 발걸음은 몇 년 전 부산시립극단에 의해 공연된 오타 쇼고의 침묵극 〈물의 정거장〉에서 큰 짐을 등에 진 배우의 느린 발걸음과 오버랩되었다. 〈물의 정거장〉에서도 그러했지만, 느린 무대 장면은 확실히 집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 삶의 무게, 힘겨운 현실을 상징하는 한겨울의 눈길을 걷는 느린 발걸음은 비현실적이며 비장미를 느낄 수 있다.

인형 같은 민중의 삶

최인훈은 희곡의 서두에 극 중 인물을 인형처럼 다룰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민중은 꼭두각시이며,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내부의 흥년, 외부 권력의 수탈)에 휘둘리는 힘없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극 중 민중의 삶은 그저 생명이 붙어 있으니 살아있음이고, 산 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도적이 된다. 도적의 삶은 관가 높은 기둥에 목이 잘려 매달려야만 끝이 난다. 죽어야만 끝(구원, 해방)이 나는 것이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



해 영웅인 아기 장수가 태어난다. 영웅의 출현을 알리는 용마의 울음소리도 들린다. 용마의 울음은 아기 장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이기에 권력에게는 위협이 된다. 권력의 색출작업은 시시각각 불안과 공포로 다가오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인다.

진달래꽃 피는 봄

아버지의 손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목을 맨다.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이고, 아내마저 잃은 아버지는 울부짖는다. 그때 그의 앞에 죽은 아들, 아기 장수가 용마를 타고 나타난다. 손에는 진달래꽃을 들고, 무덤에서 부활한 것이다. 진달래꽃은 죽은 어머니를 살려낸다. 봄이 겨우내 얼었던 땅과 산야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아기 장수의 진달래꽃은 죽은 생명을 살린다. 그리고 아기 장수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용마를 타고 승천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쳐다보며 신들린 듯 춤춘다. ‘휘어이, 휘어이, 다시는 우리 마을에 오지 마라고. 사람들의 뼈춤은 살기 위한 몸부림의 예술적 표현이며 동시에 구원해줄 구원자를 내쫓는 역설적 현실을 드러낸다. 아기 장수는 다만 ‘희망’만을 남겼을 뿐이다.

문학작품 같은 무대

연출의 무대 구현과 배우들의 열연은 아름다운 무대를 보여 주었다. 도적의 어머니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긴 노파(황미애 분), 비극적 아름다움을 충분히 보여주었던 남편의 동작과 몸사위, 몸을 던지면서까지 혼신의 연기를 다한 설화적 느낌의 아내, 무거운 극 중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웃음코드 캐릭터 개똥어멈(임선미 분), 그리고 무대 밖 소리의 주인공들까지 모두가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다.

연극이나 공연을 준비하는 이들은 늘 공통된 과제를 안는다. 이 작품이 오늘의 현실에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오늘의 현실은 흥년과 수탈, 죽어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대적 봉건주의 시대는 아니다. 하지만 작가의 말마따나 인간의 보편적 비극성 측면에서 본다면 그의 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기쁨, 슬픔, 고통, 이별, 희망의 감성은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으니. 봄비가 여름 소나기처럼 쏟아지던 밤, 첫 공연, 진득한 여운이 가슴에 남았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
그녀들은 장춘長春에서 아직도 오지 않는 봄을 기다리고 있다

제41회 부산연극제 개막작 <1945>

글_김남석 부경대 교수, 연극평론가

1. 폭력의 시간, 불편한 연극

<1945>는 한국인에게 불편한 연극이다. 기쁨이자 광영이어야 할 1945년의 의미가 이 작품에는 아예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제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압제와 폭력으로부터 헤어나 새로운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1945년이 오히려 새로운 구속과 역전된 폭력과 내면의 압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작품에서 '1945년'은 한국인의 새로운 폭력이 시작되고 내부의 압제가 들추어지는 시간이다. 일본 제국주의를 경험한 한국인(조선인)은 타민족에게 관대하고 같은 피해자로서 다른 피해자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위치여야 했지만, 현실에서의 한국인의 위치와 선택은 그러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압제를 피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고, 그 와중에 경쟁과 빈곤에서 해방되지 못한 억울함을 안고 있어야 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분명, 일본인은 숙적일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일본인을 '못된 지배자'의 형상으로 등장시키지 않았다. 작가가 선택한 일본인은 같은 일본인으로부터 '못된 짓'을 당한 피해자로서 일본인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 여성 곁에, 역시 한국인으로부터 '못된 대우'를 당하는/당할 동일한 여성을 나란히 놓는다. 그래서 <1945>의 오프닝은 두 여인의 동행을 다루고자 했다. 한국인 피해자 여성은 한때는 이웃이자 동료였지만 이제는 명백한 적이 된 일본인 피해자와 헤어지려고 하지만, 자신보다 더 난감한 상대의 처지로 인해 그만 동행을 허락하고 만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인은 달랐다. 그들은 일본인 여성, 그것도 위안부라고 낙인찍힌 피해자와의 동행을 거부한다. 장춘에서 기다리던 열차는 '자신들-한국인들이' 증오해야 하는 '그녀-일본인'을 위한 열차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해방과 자유를 향하는 귀환 열차는 그녀들(혹은 일본

인 여성 위안부)을 배제한 채 달리는 자신들만의 열차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는 80년 후의 관객들은 당혹스럽다.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은 오래된 것이어서 익숙할 수 있지만, 상대 일본인이 강박한 인상의 압제자나 고탈한 표정의 정치인이 아니기에, 그 거리감을 표하기에 적당한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본인 위안부의 곁에는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얼룩'이었고 '짐'이었고 어떠한 측면에서는 '수치'로 여겨졌던 한국인 위안부도 함께였기 때문이다.

2. 증오에서 이해로, 그리고 그 뒷면으로

해방 이후 한국인들은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거리감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녀들은 해방된 조국에서도 내보이지 말아야 할 수치로 감추어졌고 그녀들 역시 떳떳하게 공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죄인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위안부의 삶과 과거를 언급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없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눈감고 그녀 자신들도 숨죽이는 시간이 한동안 흘러야 했다.

하지만 그녀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고, 그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아픔이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그녀들에 대한 대우도 달라졌다. 점차 그녀들이 떠안아야 했던 세월의 무게가 공정하지 못했고 그녀들에 대한 우리들(직접적인 가해자인 일본인을 포함해서)의 행위가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고, 과거를 들추어, 그녀들에게 정당한 사회적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



었다. 그것은 그녀들에 대한 예우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비판이었고, 동시에 자유를 구속하고 폭력을 일삼은 가해자에 대한 저항과 불복종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최근 정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엉뚱하고도 자기 편익적인 정책을 취하고 과거의 의미와 용기 있는 반성에 찬물을 끼얹은 움직임을 보이기까지, 일제 종군 위안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점차 교정되어 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연극 <1945>는 그러한 인식 교정의 뒷면을 다시 들추어내었다. 그래서 1945년을 함께 맞이할 수 없는 여인들의 모습이 살아날 수 있었고, 그 무리 속에 양공주가 되어야 할 운명의 또 다른 여성들이 포함될 수 있었다. 살아남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증오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가 저질렀던 '못된 선택'에 대한 자기 성찰이 요구될 수 있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1945>는 아직 끝나지 않는 과거와, 미처 매듭짓지 못한 정리와,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선택에 관해 묻고 그 대답을 증용하는 작품이 될 수 있었다.

3. 그녀들은 아직도, 장춘에서 기차를 기다린다.

르네 지라르는 인간 문명의 교묘한 메커니즘으로 희생양 메커니즘을 지적했다. 이 희생양 메커니즘은 무리를 지어 살아야 하는 인간 사회의 특성상 집단 내부의 갈등과 질서의 교란은 필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필연을 무마하기 위한 방책으로 내부의 누군가를 선택하여 희생시켜 그 책임을 물어 일시적이지만 집단의 안녕을 구가한다는 문화 인류학적 결론과 상통한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인간들이' '피해자-희생양'을 고르는 방식이다. 지목된 피해자(희생양)는 여타의 사회 구성원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대부분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놓인 인물들이다. <1945>라는 작품에서 찾아보면, 한국인 그룹 속에서 일본인 여성이 그러한 위치이고 피난민 무리 속에서 위안부 여성이 그러한 위치이다.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행려병자와 약물 중독자가 그러한 위치이다. 많은 시대에서 그러한 약자들은 정상적이고 자격을 갖춘 구성원이 아닌 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차별과 처벌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시대도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1945>는 그러한 시대의 '못된 믿음'과 함께 그러한 판단의 배경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더 많은 사람이 따르는 믿음이 항상 '정당한 믿음'일 수 있는지? 우리를 지배하는 힘 있는 자의 주장이 언제나 모든 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당한 논리'일 수 있는지? 일제 강점의 역사나 분단의 상처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약자, 혹은 피해자, 궁극적으로 희생자의 처지에서, 더 큰 힘에 의한 결정, 더 많은 다수에 의한 강요, 더 그럴듯한 명분에 의한 불이익을 아무렇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혹 힘 있고 숫자가 많아 보이는 이들의 그러한 요구를 폭력이나 구속이나 압제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한국인과 다수에 의해 자행된,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차별이나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동정 역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불편하지만 체제 너머의 진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1945>는 이러한 불편함을 궁극적으로 좋은 희곡과 공연이 겨냥해야 할 질문으로 확보한 작품이다. 다만 이러한 질문을 우리 앞에서 그리고 무대 위에서 현현해야 할 때는, 그러한 시선이 어떠한 불편함을 남겨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깊게 숙고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동정심을 갖고 함께 우려하는 시선이 아니라, 매섭게 돌아보고 차갑게 비판하는 시선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직도 장춘에서 오지 않는 봄을 기다리고 있을 그녀들에 대한 더욱 냉정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지른 일과, 지금 우리가 저질러 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럼에도, 그녀들이 여전히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점은 작지만 의미 있는 수확인 것도 분명하다.

4. 적응과 훈련의 긴 여정에서

극단 동녘의 공연을 두 차례 보았다. 한 번은 영상으로 보았고, 다른 한 번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보았다. 영상으로 시청한 <1945>는 소극장에서 공연한 영상으로 여겨졌다. 아마도 부산 시내 소극장이었을 것이다. 그다음으로 관람한 <1945>는 부산연극계 개막작으로서의 공연이었고, 무대는 하늘연극장이었다.

분명 두 공연은 서로 달랐고, 많은 변화가 일어난 서로 다른 버전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것은 극장 크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늘연극장은 규모상으로 대극장에 가까운데 <1945>는 그만큼 증가한 무대를 감당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 세트는 대극장 규모에 부합하지 않았고 극단원들의 연기는 대극장 무대에 적



응할 준비가 필요해 보였다. 다소 어정쩡하게 초연의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일관성을 강하게 견지하지 못한 무대 적응력을 보였다. 어쩌면 동넵과 연출가의 의도적인 어정쩡함일 수도 있을 것이다. <1945>가 참가할 전국연극제의 무대 크기를 감안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대의 크기 변화나 상황 차이는 더 근본적으로 <1945>의 내적 성장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배우는 다양한 크기의 무대에서 적응하여 연기할 수 있도록 늘 자신과 상대를 인지해야 한다. 큰 무대에서의 연기가 작은 무대에서의 연기로 이어질 수 있고, 관객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산연극제의 개막 공연은 더 개선된 연기와 더 적응할 상황을 위한 일종의 허들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허들을 뛰어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준비이며, 곧 실전을 향한 연습일 수 있다.

<1945>가 더 큰 파장을 그리는 연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크고 작은 난관을 넘고, 인식의 벽을 허물어, 우리 곁에 남은 자들에 대한 식견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것은 달라지는 관객과 무대와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일종의 수련과도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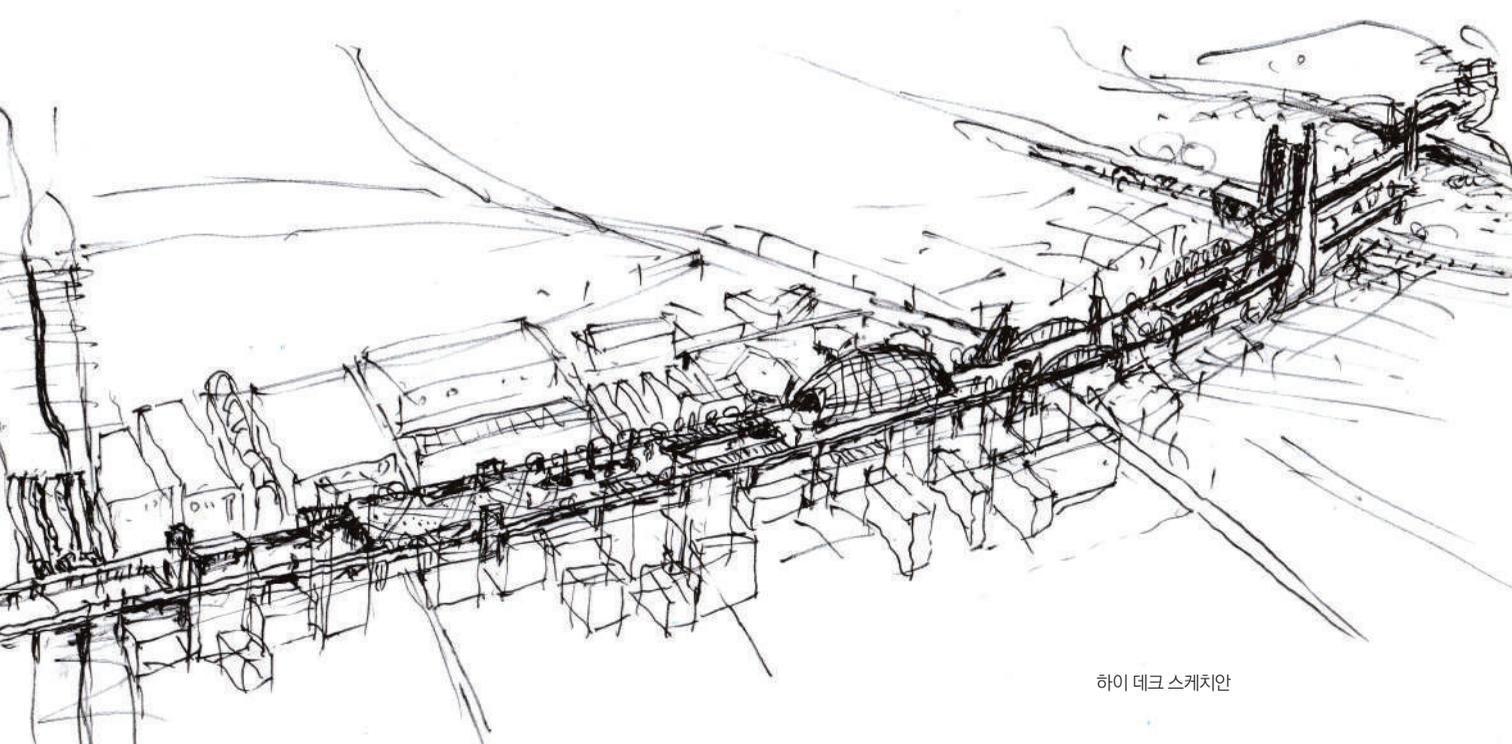
建築正記V

미래 부산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안

1. 도시의 경쟁력

세계화된 환경 속에서 도시 간 경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많은 도시가 전략적으로 도시의 심벌이나 인식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도시가 창출할 수 있는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경쟁력은 타 지역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들이 그 도시를 방문하고 머물고 싶게 하여 관광도시로서의 경제적 효과를 높여주며, 정주민의 삶의 수준과 만족도를 높여 도시의 품격을 올리는 척도가 된다. 다행히 부산시는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산연구원(BDI-BUSAN DEVELOPMENT INSTITUTE)이 여러 현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이 데크 스케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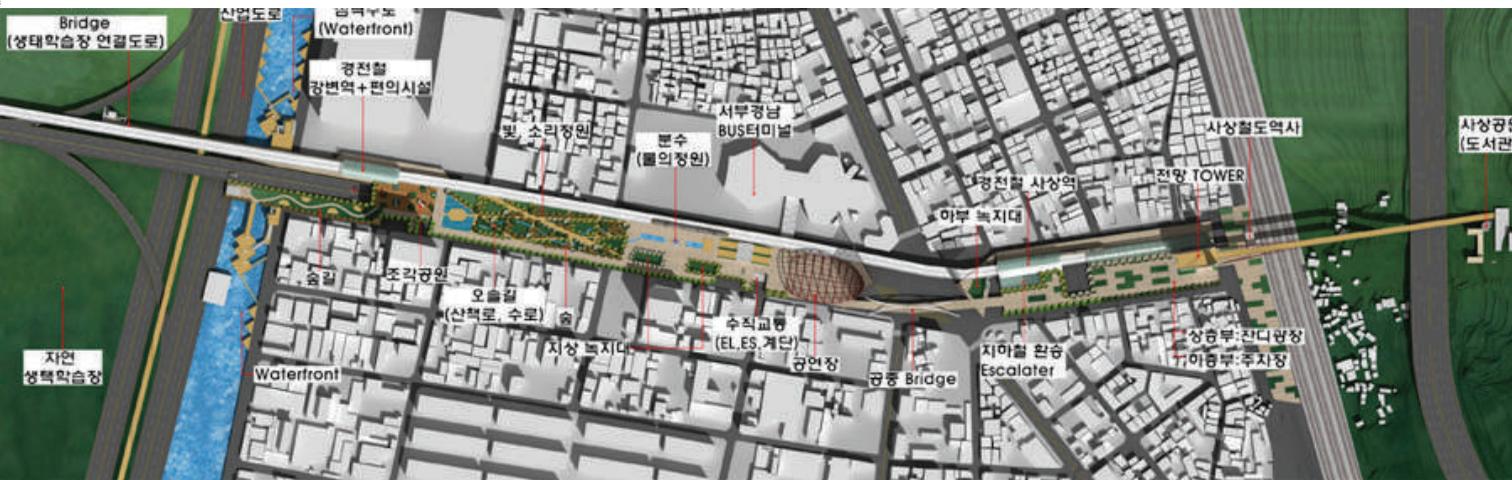
2. 도시 부산의 현재와 변화

BDI 2019-11-874 논문(부산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브랜드 전략구축)에 따르면 부산의 이미지는 관광도시, 해양도시의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또, 부산시가 제3차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체계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소프트 인프라 면에서 삶의 수준을 말해주는 문화, 전통, 예술, 관광, 복지, 소비상품, 교통, 주거, 교육적 환경 등을 포함시켰고, 도시 환경적 면에서는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존, 공간의 쾌적함, 문화 전통 자연 등 볼거리의 다채로움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시 부산은 소프트 인프라 면에서 국내외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보다 나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포지향三包之嚮의 도시로 산, 바다, 강을 모두 가지고 있고 역사적 스토리도 가득 차 있는 부산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매력적이고 다이나믹한 아름다운 도시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야경 또한 아름다워서 천마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영도 및 북항의 야경은 홍콩, 하코다테, 나폴리와 비견할 만한 풍광을 자랑하며 경관 및 관광지로서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 및 물리환경적 입장에서 바라본 부산은 근대화 시기 최초의 개항도시이며, 한국전쟁 때는 피란도시, 산업화의 기지로서 수출 항구도시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 흔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때의 흔적들인 철도, 항만, 산업기지로서의 고가도로, 부두, 공장과 같은 건조물 등이 지금은 새로운 도시 이미지 브랜딩을 위한 대체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혹은 사라지기도 하는 변화를 통해서 부산은 가히 다이나믹한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하이 데크 배치계획안



3. 도시계획 시설의 중복·입체화

지방 도시가 갖는 열등감은 도시가 갖는 삶의 질이 수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도시계획시설의 시민 요구 충족도 및 생활 SOC(Social Ovead Capital-국민생활편의시설: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기초 인프라 +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복지, 공원시설 등)의 확보는 공공성과 기능성 증진의 입장에서 볼 때 시급하다. BDI 논문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화 제도 활용방안(II)」(2023-01-062)에서 제시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화 제도는 제한된 도시 공간 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시설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어떤 경우에는 2~3가지 이상의 복합적인(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 포함하여) 입체도시계획시설로서 대단히 흥미롭고 환영할 만하다 하겠다.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화 제도의 활용에 의한 중복 시설의 예는 전국 도시 곳곳에서도 볼 수 있다. 주로 교통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횡단, 자동차정류장 등), 공원 및 체육시설, 시장, 공공청사, 우수지 등(22. 09. 20,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3가지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및 비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 상·하부 공간에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비도시계획시설(일반건축물)을 함께 계획할 경우 당연히 정부 및 시 당국의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입체화에 따른 각 시설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 방향 및 대상 범위, 운용,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야겠지만 원도심 내의 시설 입지적 조건이 한정되어 있는 기성 시가지의 경우 토지 보상, 철거 비용 등의 공공재정 절약은 물론이고 도심 내의 공간 이용 적정성 면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면에서도 경제성이 충분하다. 더더구나 그 시설이 도시의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시설제이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 민

간협력 연계를 통한 국비 지원 등의 단계적 지원을 요청하여 관광도시로서 삶의 수준을 더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4. 三角洲(Delta)

삼포지향三包之鄉 도시의 조건인 산, 바다, 강 중에서도 부산의 강은 타 도시가 갖지 않은 많은 이점이 있다. 도시가 필요로 하는 용수 공급원의 역할도 하는 강의 하류에 속한 부산은 강 주변의 녹지공간과 생태 공간인 삼각주를 갖고 있다. 건축이 금지된 마지막 남은 천혜의 생태공간인 三角洲(Delta)는 미래 부산이 서부산권으로 확장, 발전해 나갈 때 도시 중심권에 위치한 생태공원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며, 생태도시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도시 공원 및 델타 면적 비교: 부산-시민공원-0.47km², 둔치도-2.2km², 삼락공원(delta)-4.72km², 대저공원(delta)-3.43km², 맥도공원(delta)-2.55km², 여의도 시민공원-2.9km², 뉴욕 센트럴 파크-3.41km², 런던 하이드 파크-1.4km²)

Delta지역은 대부분 건축이 거의 금지된 지역(둔치도는 일부 건축물이 있으나 미래 부산의 시민 생태, 문화공원 조성기금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으로 둔치도 중앙에 40,000㎡ 매입)이어서 시민들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한 채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다. 이 장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부산의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그 접근성에 대해 건축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5. 사상 광장로의 중복·입체화 제안

70년대부터 산업 중심도시로 부산의 관문 역할을 해 온 서부산의 중심인 사상은 현재 에코 델타시티 등 도시형 첨단 산업과 낙동강 휴양 환경도시로 발달옴하고 있다. 특히 사상 광장로 부분은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 2호선, 사상 철도역, 부전마산 복선전철 등 서부산 교통의 중심지이며 주변의 호텔, 유통 및 소비시설의 집약지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145만 평의 천혜의 생태공원인 삼락공원과 서부산 교통 중심지 사상 광장로에 부산김해경전철 사상역이나 그 상부에 하이 데크(High deck) 형식으로 연결 브릿지를 조성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여러 가지 난관(교통의 집중 및 부전·마산선의 구조 안전 문제, 김해경전철 등)이 예상되지만 80m 폭의 광장로의 도로 폭은 보상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많은 폭을 양보하여도 그 상·하부에 다양한 도시계획 및 비도시계획 시설물을 설계하고 시민들을 위한 1.2~1.6km 정도의 하늘 산책로를 만들면 자연 생태 Delta와 함께 관광 브랜드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예산은 범시민적으로 국가 보조를 요청하며 단계적으로 구간을 나누어 시공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글_이상준 동서대학교 명예교수



- 1 사상역 상부 연결 브릿지
- 2 데크 광장
- 3 램프 부분

음악으로 본 세상 이야기I

오페라, 사람들의 이야기

*“내 노래여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자유 위해 몸 바쳐 스러진 저 수많은 십자가 위로하라.”*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한 부분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음악 선생님께서 혼나면서 외웠던 가사이다. 무엇이 오페라를 좋아하게 했는지는 잘 모른다. 그저 가슴에 남아있었다. 이 힘이 고등학교 시절 11시간 40분 걸리는 완행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페라를 보러 가게 했는지 모른다. 오페라는 필자의 가슴에 낙인처럼 남아있는 사랑의 흔적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부산 예술계의 가장 큰 화두는 부산오페라하우스다. 2004년 북항을 해상관광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수도지만 문화예술분야의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특히, 전문 공연시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롯데그룹이 2008년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에 1,000억의 기부 약정을 체결하면서 부산오페라하우스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부산오페라하우스에서 펼쳐질 오페라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다.

오페라, 17세기 사람들의 사랑에서부터...

17세기 초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작된 오페라는 세기를 거듭하면서, 그 규모가 작은 극장에서 시작하여 객석이 1,000석, 2,000석, 3,000석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40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다. 오페라 전용 극장은 단순하게 공연장의 범위를 넘어서 도시 또는 나라의 문화 수준을 나타내기도 하며,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지역의 문화 상징성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2023년 현재의 오페라는 국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 또는 일부의 전유물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는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오페라의 역사성이나 시대정신은 여전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22 부산오페라시즌 콘서트 오페라 <가면무도회>_금정문화회관

법학자인 박홍규 교수의 저서 『비바 오페라』¹⁾ 머리글에 “음악에 대한 민중적 접근 또는 정치적, 사회적 이해는 왜 없는가? 이 소박한 의문에서 이 책은 쓰여진다. 결론적으로 나는 음악은 정치적, 사회적 것이라고 이해한다. 아니 모든 예술이 정치적, 사회적이라고 생각한다. 음악의 정치성과 사회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오페라다.”²⁾ 필자는 모든 예술 특히, 오페라가 정치성과 사회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대목에 동의한다. 400년 이상을 지속해온다는 것은 정치성과 사회성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너무도 많은 돈과 인력, 공간이 필요한 예술, 자본 중심의 삶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치력과 사회성을 요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오페라는 음악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의 것이라 생각한다.

오페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 나름 잘 순화하여 시대를 계몽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혁명에 앞장서는 역할도 하였다.

그 내면에는 민족과 민중, 자유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잘 다듬어서 말이다. 일부 특권층을 위한 오페라 같지만, 이 특권층의 삶을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작곡가들이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음악으로 탄생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인간의 삶에서 영원한 화두인 사랑이 주를 이루지만, 권력에 반하는 풍자적인 내용,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을 폭로하는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를 음악극이라는 형식에 담고 있다. 우리나라 마당놀이의 풍자 형태의 모습을 서양에서는 오페라라는 장르에 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오페라도 사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에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를 통해 동시대의 삶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지금도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1) 『비바 오페라』 박홍규 지음. 가산출판사. 2022년

2) 위 책 10쪽

오페라 작곡가의 중요성

오페라에서 중요한 것이 작곡가의 생각이다. 작곡가는 '어떤 생각으로 오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작품의 첫 구상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창작이라 한다. 기존에 없었거나, 부조리한 것, 아니면 대중이 바라는 세상의 그림을 그려내는 창작자이다. 이렇기에 창작자의 작품은 결코 세상과 떨어져서 나올 수 없으며,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강자와 약자의 생각, 사회적, 정치적 갈등과 해결 등을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예술 장르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동시대의 삶과 이야기를 관찰하여 알릴 것은 알리고, 고발할 내용은 고발하되 그 수단이 작곡이라는 음악 형식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순수 음악은 사회적, 정치적인 표현 없이 오로지 인간 본성과 이성에 의

해 순결한 것이 순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같은 맥락에서 오페라를 순수예술 음악으로 생각하지만, 오페라의 내용은 지극히 사회적이며 정치적이다. 이러한 행위가 순수한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깝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음악으로 표현되어 시대를 이어가며 그 표현 방법이 다양해졌을 뿐이다.

오페라하우스의 중요성

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전용 극장이다. 이는 단지 건축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 문화의 척도로까지 자리하고 있다. 물론 극장의 특징도 중요하겠지만, 극장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술을 간직한 건축물이기에 기술의 척도로도 여겨진다. 오페라하우스는 순수 어쿠스틱



2022 부산오페라시즌 전막 오페라 <라 보엠>_부산문화회관

음악을 위해 만들어지기에 건축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선명한 음악 소리를 모든 객석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귀는 20Hz에서 20만KHz 까지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주파수에 따라서 느끼는 소리의 감도는 다르다. 일상에서 일반인들은 1~4KHz까지의 소리를 주로 선명하게 듣게 되는데, 공연장은 초저음이나 초고음까지 소화해야 하기에 반사판과 흡음판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술이 총동원된다. 때문에 오페라하우스는 현대 음향 기술의 결정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페라하우스는 건축물 외관을 비롯하여 내부의 기술력까지 건축물 자체가 예술작품이기도 하다. 오페라는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즐기는 예술이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은 곳이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르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오페라하우스의 중요성은 도시 가치 창출과 문화 향상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되었다. 이는 문화예술이 공공재로 들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공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으로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기회의 다양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는 도시 또는 국가가 선진국가며 앞선 도시로 자리한다.

오페라를 사랑할 이유

사람들의 취미나 특기는 다양하다. 지금의 시대는 지난 시대보다 더욱 다양한 것들이 생겨날 것이며 앞으로는 더 다양해질 것이다. 더 자극적인 것, 더 본능에 충실한 것을 찾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즈음은 극한체험을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Extreme Sports)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기도 한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시대에 '지난 시대의 유물 같은 오페라를 요즈음 누가 감상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것이다. 과연 지난 시대의 유물이라고 취급하며 외면할까? 우리의 삶은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인간의 몸은 아날로그이며, 디지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공지능과 챗GPT가 나오는 시대적 환경이 도래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아날로그를 더욱 아날로그답게 만들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하고 움직여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삶이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본질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4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오페라. 어느 시대이건 당시의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의 축소판처럼 삶의 전 부분을 다양하게 펼쳐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유익한 분야로 만들어 즐겨야 한다.

이제 곧 우리 부산에도 오페라하우스가 완공된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공부하고 즐길 준비를 하여야 한다. 오페라는 그냥 가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조금의 공부가 필요하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 앞으로 필자는 총 8회³⁾에 걸쳐 독자들과 오페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앞선 시대의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준공과 개관, 부산사람들의 오페라 사랑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글_정두환 문화유목민, 문화유목집단동행 예술감독

-
- 3) I. 오페라, 사람들의 이야기 II. 19세기 오페라
 III. 20세기 오페라 IV. 모차르트의 오페라
 V. 베토벤의 오페라 VI. 베르디의 오페라
 VII. 바그너의 오페라 VII. 부산, 오페라를 품다

제19회 송혜수 미술상, 강동석 판화가 선정



부산미술협회(회장 박태원)는 제19회 송혜수 미술상 수상자로 판화가 강동석을 선정했다. 송혜수 미술상은 부산 화단 1세대 서양화가인故 송혜수 화백의 유지를 이어받아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는 미술인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평면, 입체 부문에서 20년 이상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공고일 당시 만 50세 이상)를 대상으로 한다. 강동석 판화는 다양한 장르와 재료 및 기법을 활용해 판화와 서양화 작업을 하고 있다. 판화 작업에서는 주로 인물의 무의식 속에서 즉흥적으로 표현되는 독특한 표정이나 미묘한 감정을 포착한 목판에 구현한다. 그리고 새기고 찍어내는 과정을 통해 이성을 환기하고 감성적 사유를 즐기는 작가는 내면의 무의식 세계와 존재에 대한 탐구에 매진하고 있다. 씨는 19번의 개인전과 300여 회의 단체전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봉생문화상(2015)과 오늘의 작가상 본상(2014),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1999)을 수상했다. 김수길 심사위원장은 수상자에 대해 “인물(얼굴)을 주제로 독특한 기법을 모색, 다양한 선과 색의 변주로 인간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였고 자신만의 조형언어를 구사해 나가는 훌륭한 작가”라고 했다. 수상자에게 1천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고 시상 규정에 따라 강동석 판화가 6개월 이내에 수상 기념 개인전을 개최하게 된다.

부산문인대학 수강생 모집

아동문학, 수필, 시조, 시창작반 강좌 개설

문학 애호가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부산문인협회(회장 이석래)는 시민을 위한 부산문인대학을 운영 중이다. 강좌는 시창작반, 시조창작반, 수필창작반, 아동문학(동화)반으로, 각 분야에 이론과 창작을 겸비한 교수를 강사로 초빙했다. 아동문학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아동문학가 손수자가, 수필창작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며, 부경수필아카데미 전임교수인 부경대학교 박양근 교수가, 시조창작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며 민달 시인이 맡는다. 시창작반은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뉘며 기초반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심화반은 오후 7시부터 시작되며, 강영환 시인이 강의를 이끈다. 각 반 선착순 15명 내외의 소수 정예로 강좌는 3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이후 심화반으로 수업을 이어간다. 강좌는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문의 051)632-5888

제39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일반국제공모 시작

1차 작품제출 ~ 7. 7.(금), 2차 작품제출 ~ 9. 1.(금)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회장 이봉두)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건축가회와 일본건축가협회 킨키지부, 중국톈진건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3년 제39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일반국제공모가 시작되었다. 올해 주제는 ‘글로벌 장소성의 재고-팬데믹 이후 모임과 이벤트가 창발하는 새로운 장소 개념의 정립’이다. 엔데믹으로 접어든 지금은 새로운 만남과 이벤트가 창발될 수 있는 문화공간의 개념과 장소성의 개념이 회복되고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로컬의 장소성 개념은 계속되는 질문이 되어야 하며 현재진행형의 작업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번 건축대전은 이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제로 했다. 국내외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도면 등으로 표현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등록은 6월 2일까지이며, 7월 7일까지 1차 작품 제출, 9월 1일까지 2차 작품 제출 후 3차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한 3차 공개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가려진다. 대상 1점에는 부산광역시장 상장과 상금(6백만원 또는 3백만원과 해외건축탐방 중 선택), 우수상 3점에는 부산건축가회회장상-킨키지부장상-톈진건축학회회장상과 상금(3백만원 또는 해외건축탐방 중 선택) 등이 수여된다. 원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iabb.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kiabcompe@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51)241-4011



이영길展

~ 5. 5.(금)
부산진구청 백양홀

흐드러지게 핀 매화나무, 푸른 들과 나무가 어우러진 모습, 평범한 우리네 시골 마을 등. 자연경치가 좋아서 그린다는 이영길 작가의 풍경화는 파스텔이라는 재료로 그려져 수채나 유화 작품과는 다른 토속적인 느낌과 질감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파스텔화와 달리 손가락으로 눌러 비비며 그리지 않아서 형태의 윤곽이 허물어지지 않고 세밀하며 자세한 것이 특징이다. 김영준 부산현대미술관 큐레이터는 작품에 산과 들, 꽃과 나무가 등장한다고 해서 목가적이거나 전원적인 게 아니라며 “그의 풍경은 그저 자연경(自然景)이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 전시(4. 19. ~ 24.)에 이어 부산진구청 백양홀의 리모델링 후 재개관전으로 열린다.

문의 051)558-4978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5. 5.(금)~ 7.(일) 금 오후 5시
/토 오후 3시, 7시 /일 오후 2시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라흐마니노프의 탄생 150주년과 서거 8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에서 선보인다. 그의 「피아노 협주곡 제 2번」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1위로 유명하다.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는 그가 은둔생활을 한 3년을 ‘얼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의 시간으로 지칭하고 그때의 숨겨진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다. 현악 4중주와 한 명의 피아니스트가 직접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서정적인 음악과 배우들의 연기가 어우러진 뮤지컬은 관객들의 가슴을 적신다. 러닝타임은 인터미션 없이 90분이며 ‘라흐마니노프’역은 박유덕, 정옥진 배우가 ‘니콜라이 달’역은 정민, 정동화 배우가 맡았다.

문의 1566-5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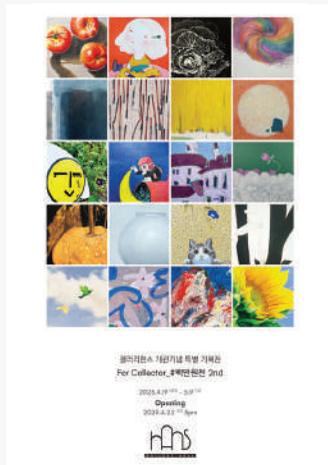


NOTICE

~ 5. 7.(일)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KT&G 상상마당에서 부산 청년작가 후원전시 'NOTICE'를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4·5층에서 5월 7일까지 개최한다. 강다현 강민석 김기윤 김진호(응고) 김재용 김태성 김현진 남성원 박상환(상환) 박영환 박지원(원문) 백정록 차성주(아트랩차차) 최서영(서영) 15인의 작가들은 작품 설치와는 별도로 각자의 표현대로 부스를 꾸미는가 하면, 관람객을 위해 '도슨트'를 자처해 작품을 직접 소개하기도 한다. 작품 재료와 작업과정 등을 알아볼 수 있는 별도 부스도 입구에 마련된다. 회화·조각·설치 등 새롭고 감각적인 작품과 더불어 이러한 청년작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관람객들이 예술을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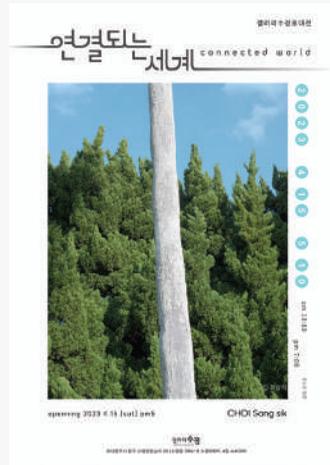
문의 070-8893-0892



**For Collector #백만원전 2nd
개관기념 특별기획전**

~ 5. 9.(화)
갤러리 한스

일상에 위치한 갤러리 한스가 개관기념 특별기획전으로 'For Collector #백만원전'을 연다. 첫 개관기념 기획전 때 생애 처음 작품을 구매해 자기만의 공간에서 직접 즐겼거나, 자녀에게 선물했거나, 친구와 우정의 징표로 마음을 나누기도 했고, 태어난 첫 손주에게 할머니의 사랑을 전하는 의미로 작품을 구입했던 많은 컬렉터들의 요청으로 'For Collector #백만원전' 두 번째 전시를 열게 되었다. 여기에 미술관이나 갤러리 방문이 편안 한나들이가 되고, 일상예술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더해졌다. 권혁 권태원 김결희 박준희 백승미 신홍직 양홍근 여두홍 이근희 조몽룡 등 20여 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한미애 관장은 "특별한 소수가 아닌 많은 이들이 예술과 문화를 향유하며, 급변하고 복잡한 현대의 시간들 속에서 취향껏 고른 작은 그림 한 점이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10-4574-0660



**최상식 사진전
'연결되는 세계'**

~ 5. 10.(수)
갤러리수정

부산의 중견 및 신진 작가의 사진 전시를 이어온 갤러리수정이 이번에는 대구를 기반으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가고 있는 최상식 작가의 초대전을 연다. '연결되는 세계' 속 작품들은 잠에서 깨어난 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떠오를 듯 말 듯, 꿈속 장면 같은 가상의 세계와 일상에서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현실 물리 법칙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연결한 결과물이다. 유년기에 오락실에서 문득, 동전을 넣지 않으면 이 세상도 멈추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는 작가는 이미지를 관측하고 배치하는 작업을 하며 '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진으로 기록할 때 대상의 상태가 확정되고 의미가 생긴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현실과 꿈이 혼재된 듯한 그의 작품은 보는 이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문의 051)464-6333



**소리극
<벨벳토끼>**

5. 11.(목) 오후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와 토끼 인형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소리극으로 찾아온다. 영미권 고전 동화 『The Velveteen Rabbit, How toys become real?』(국내판 『토끼 인형의 눈물』 등)를 국내 최초로 공연화 한 작품 <벨벳토끼>다. 한 아이에게 선물로 주어진 벨벳 토끼 인형은 아이가 진심으로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진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토끼 인형은 점점 낡고 허름해지지만 아이와 함께 할 때 행복함을 느낀다. 어린 시절 한 번쯤 가져봤을 '나만의 인형 친구'를 통해 우정과 사랑,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벨벳토끼>는 판소리 용어로 '기교'라는 뜻을 가진 창작 단체 [타루]가 우리 전통예술을 입혀 더욱 풍성한 무대를 만든다. 입장은 36개월 이상부터 가능하다.

문의 051)519-5661-4



이윤선
제18회 개인전

5. 1.(월) ~ 13.(토)
씨니갤러리

서양화가 이윤선 작가의 18번째 개인전이 5월 1일부터 13일까지 씨니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가 주제로 삼은 ‘끝이 없는 무의식의 알아차림’은, 한 개체로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해 지각하는 것을 뜻하는 ‘게슈탈트Gestalt’를 형성해서 전경으로 떠올리는 행위인 ‘알아차림Awareness’이라는 상담학 이론과 맞닿아 있다. 현대인들이 타인의 삶과 행동,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며 대리만족하는 현상에서 작가는 ‘나는 지금의 나를 바로 보고 있는 것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바다 위의 풍경은 나의 의식이고 바다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을 상징한다. 늘 깨어 있고 무의식을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표현”했다고 작가는 말한다.

문의 051)714-5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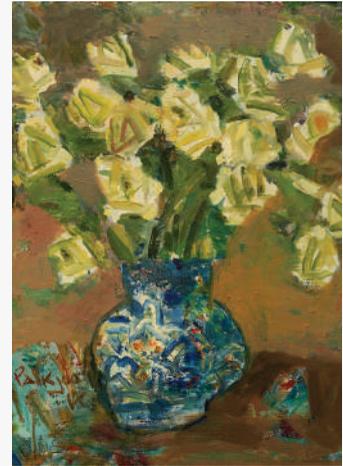


성준
[survive]

5. 11.(목) ~ 20.(토)
이젤갤러리

‘생존[survive]’은 환경 문제와 결부된 생존이라는 주제를 사뭇 다르게 해석한 청년작가 2인의 전시다. 두도하 작가는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쓰레기를 그림에 활용한다. 질감, 색상, 크기가 다른 개체들을 결합해 탄생한 작품은 플라스틱 비닐로 덮힌 물고기, ‘양심’을 살리기 위한 총등으로 분하며 관람객에게 열린 해석의 여지를 준다. 황승연 작가의 모티브는 어린 시절 좋아한 공룡이다. 주변 환경에 묻어가기보다 대도시의 휘황찬란한 색으로 치장한 공룡을 상상하며, 오히려 ‘한디캡’을 안고 가는 게 생존에 유리하지 않았을까 한다. 재료도 기법도 다르지만 ‘환경에 맞춰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상상한 작품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주변 환경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듯하다.

문의 051)753-4808



성백주 회고전
‘5월의 장미’

5. 12.(금) ~ 25.(목)
미광화랑

고 성백주(1927~2020) 화백은 한국 표현주의 1세대를 대표하는 화가로 1960년~1970년대 후반까지 부산에서 작품활동을 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장미 그림에 천착해 그를 많은 이들이 ‘장미의 작가’라 부른다. 미광화랑은 화백의 작고 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회고전 ‘5월의 장미’를 개최한다. 형태를 사실적으로 그리기보다는 반 추상적 감각으로 다채로운 색채와 형태의 변형으로 조형적 실험을 해온 화백의 장미는 자유롭고 자유분방한 자태와 매혹적인 색채, 수려한 터치가 매력적이다. 선전 그는 “장미는 색깔이 참 자유로운 꽃이며 화면에서 조형적으로 창조하기에 더없이 아름다운 소재”라고 말했다고 한다. 장미의 계절 5월, 화백의 캔버스에 담긴 장미를 만나 보는 건 어떨까.

문의 051)758-2247



**정지윤 개인전
'푸른 초상'**

5. 4.(목) ~ 28.(일)
오브제후드

모노톤의 색채를 이용한 감각적인 물감 표현과 마티에르가 특징적인 정지윤 작가의 개인전 '푸른 초상'이 오브제후드에서 열린다. 순간을 붙잡고 싶을 때 우리는 흔히 카메라로 장면을 포착해 찍는다. 그 장면은 개인적 경험이지만, 감상할 때에 또 다른 순간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작가는 웹에서 찾은 파운드 이미지를 수집해 캔버스 위에 옮기는데 대개 일상 속 친근한 모습들이다. 원본 색상을 지운 작품은 구도와 형태, 인물의 포즈 등 이미지 자체의 조형성만 남고 인물의 서사나 감정은 의도적으로 배제된다. 마무리 과정에서 '드립핑 기법'으로 물감을 흘부려 표현해 회화성을 더한 작품은 감상자에게 열린 해석을 가능케 한다.

문의 070-4647-3507



**이세 히데코 원화전
'그림책, 특별한 하루 특별한 길'**

~ 5. 28.(일)
부산도서관 전시실

맑고 섬세한 수채화 그림으로 유명한 일본 작가 '이세 히데코'의 원화전이 부산도서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시민에게 원화의 맛을, 그림책의 맛을'이라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행사다. 『나의 롤리외르 아저씨』 『고흐, 나의 형』 『첼로 노래하는 나무』 『첫 번째 질문』 등 우리나라에서 권장 도서로 추천받는 유명 그림책의 원화와 그림책에 삽입되지 않은 미공개그림, 스케치 등 110여 점을 선보이며 지난 4월에는 북토크와 그림책 특강이 열려 호응을 얻기도 했다.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원화전에서 시야가 탁 트이는 아름다운 그림을 생생하게 만나보는 건 어떨까.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볼 수 있고 월요일은 휴관이다.

문의 051)310-5434



**부산 촌놈, 서울 가다
: 서울리안-비스트**

5. 4.(목) ~ 29.(월)
523갤러리

'인-서울'(서울특별시시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뜻함), 명품 소비, 대기업 취직, 서울 집 마련 등이 '평균'이 된 현실과 그러한 세태를 탐구한 전시가 열린다. "모더니즘을 계승해 색상 조합과 화면 분할을 통해 관객에게 심미적인 쾌락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는 슈라이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퍼리Furry'(수인獸人과 같은 의인화한 동물 캐릭터를 다루는 서브컬처 용어)를 활용해 '평균'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을 '서울리안-비스트'에 비유한다. 작가는 "부산에서 서울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예상했다"고 하면서도 "나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한국 사회에 관한 질문을 던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0507-1356-4277



최인수
‘물질의 서사’

~ 5. 30.(화)
데이트갤러리

해운대에 위치한 데이트갤러리에서 5월 30일까지 조각가 최인수의 ‘물질의 서사 (Narrative of Matter)’를 개최한다. 작가는 서울대학교에서 조소를 공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독일의 국립 칼스루헤 미술대학에서 수학했다. 그는 서구의 시각 중심주의에 이의를 제기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이나 촉각적, 신체적 감각이 근원적이고 풍부한 감각이라고 판단하고 이로부터 미지의 조각적 가능성을 탐색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나무를 이용한 「장소가 되다(Becoming a Place)」 연작을 비롯한 다수의 드로잉 작품을 선보인다. 빠른 속도로 급변하는 시각적 환경과 문명에 익숙한 관람객들은 자연으로부터 온 조각에 감응하고 사유하는 그의 작품을 통해 고요하고 진솔한 여백의미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51)758-9845



박현우 사진전
‘도시일상’

~ 6. 3.(토)
신기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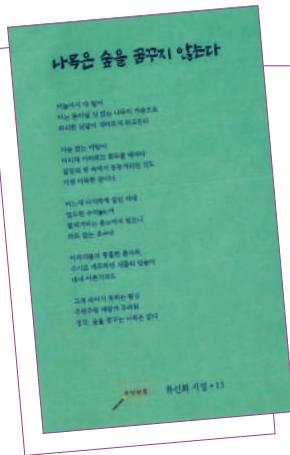
박현우의 5번째 사진전 ‘도시일상’이 6월 3일까지 영도의 갤러리형 카페 신기산업에서 열린다. 최근까지 ‘서울일상’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해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국내외 도시의 일상을 사진과 글로 담아 선보인다. 부산인천대전을 비롯해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베이징 홍콩 타이베이 등 비교적 가까운 국가의 도시부터 파리 뮌헨 쿠알라룸푸르까지 총 30개 도시다. 마스크 없이 맞이하는 팬데믹 이후 ‘첫봄’에 그는 이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볼길 권한다. 산복도로 꼭대기에 위치한 부산항 뷰가 내려다보이는 신기산업이라는 공간에서 ‘여유로운 커피 한잔과 함께 사진 감상 여머세요라는 전시 의도도 있다. 타지역에서도 많이 방문하는 공간에서 도시의 일상을 주제로 한 전시를 감상하는 것은, 살고 있는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를 선사한다. 문의 010-5188-5135



Episode 3. 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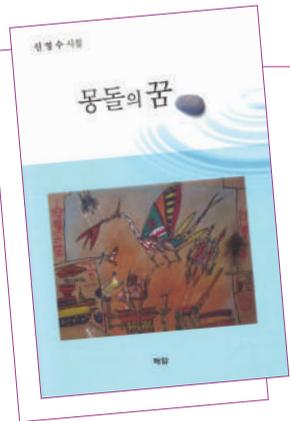
5. 18.(목) ~ 7. 7.(금)
갤러리 래 부산점

20세기 미술계 거장 피카소의 ‘그림은 일기를 쓰는 작가들의 또 다른 행위이다’라는 말에 영감을 얻은 갤러리 래의 세 번째 Episode 기획전이 열린다. 날카로운 색면 분할로 이뤄진 비현실적 공간이 특징적인 박종희, 전통적 명화와 현대사회의 상황을 시각적·상징적·문화적으로 융합하는 박종화, 부조화된 이미지에 텍스트를 배경으로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손수민, 작가의 싸인이 담긴 공이라는 뜻과 ‘쌓인 공’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싸인볼」, 연작으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유은석, ‘왜곡’이라는 키워드를 물에 대입하는 이기택,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을 한 「Island Boy」로 유년기의 행복을 표현하는 최한진 작가 등이다. 이들이 보는 세상과 메시지는 그림을 통해 전달되어 관람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문의 051)995-2020



나뭇잎은 숲을 꿈꾸지 않는다 류선희 / 수정샘물

1992년 월간 『한국시』로 등단한 시인의 열세 번째 시집이다. ‘미끼는 매번/오래 묵어 너덜 거리는 헛꿈’이지만 시를 쓴다는 것은 ‘겨울 등 뒤에서도/사유의 창 속에/뉘싯대를 드리우는 것’(『오래된 습관』 중)이다. 이수정 문학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시인의 깨달음과 시의 원숙함에 대하여 반추하게 하는 시편들”과도 마주한다. ‘흔들리지 않는 생은’ 없기에 ‘지난한 삶이 흔들 때마다/줄곧 두리번’거리며 의지할 수 있는 목다리를 찾아보지만 시인의 마음을 공굴리게 한 것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끼고 있던 목다리까지 던지고/가뭇한 홀씨로/꿈꾸던 모태를 찾아 날아가는 만들레다. 흔들리지 않으려 버티기보다 온몸에 힘을 빼고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즐거분해지는 것, 지난한 생을 건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시인이 일러주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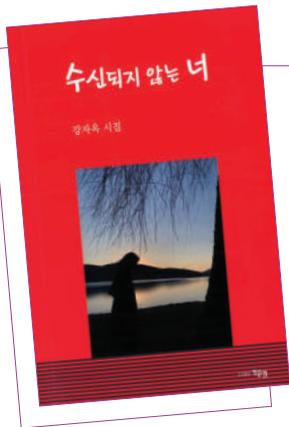
몽돌의 꿈 신영수 / 해암

첫 시집을 펴낸 신영수는 『아이젠 한 짝』 『산은 말이 없지만』 등 4권의 수필집을 펴내고 부산 수필문학협회 회장을 역임한 수필가다. 소박한 삶 속에서 받았던 감동, 감정 등 많은 느낌을 농축된 이미지의 짧은 글로 시집을 내보고 싶었던 소망을 실천에 옮긴 것이 이번에 펴낸 『몽돌의 꿈』이다. ‘이슬같이 영롱한 흔적은 아니더라도/남의 속을 시원하게 적셔주는/아름다운 말이 되어/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에 흔적이고 싶’(『흔적』 중)은 바람과 ‘화사한 유채꽃 향연에 눈 감은 채/정성 들일 먹거리 시나나빠’(『시나나빠』 중)만 보셨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제 멋대로 살아온 못난 자식/이제사 가슴속에/저리도록 아픈 회한으로 남아’(『내게도 아버지가 계셨다』 중) 계신 아버지의 모습도 그렸다. 작가에게 ‘찬찬히 바라보며 마음을 다지고 주위를 살피면서 같이 손잡고 걸어가고자 하는 발걸음’이 수필이듯 시에서도 그 바람이 그대로 읽혀진다.



우리 풀꽃 같은 사랑으로 한정미 / 세종출판사

시를 읽을 때의 즐거움은 자유로움에 있다. 시인의 의중을 파악하기 보다 이해가 되는 시는 같은 사물을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나름의 상상력으로 무엇을 표현 하려는 걸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서다. 낯설게하기와 시적 은유로 독자를 만나야 하는 시인의 고충은 그 반대다. ‘활자들이 난무하는/검은 숲속//…행간의 틈새에 갇혀/영겨추춤/꿈틀거리는 가슴만/팔딱이고 있’(『행방불명』 중)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에/손을 내밀면/잡히는 건 허무//막연한 그리움에 젖어/면 산’(『기다림』 중)을 애타게 바라만 보기도 한다. 문학평론가 박미정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우울한 감정 즉 쓸쓸함을 긍정의 쓸쓸함으로 이끌어 내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정서를 제공한다고 안내한다. 2015년 월간 『문학도시』로 등단한 시인의 첫 시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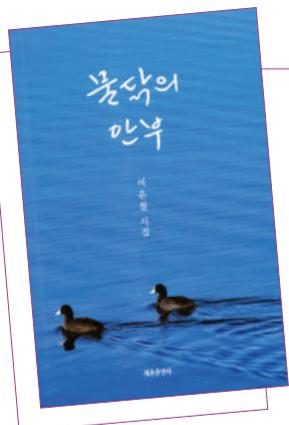
수신되지 않는 너 강자옥 / 도서출판 두손컴

『부산진문예』에 「성지곡의 햇살」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강자옥 시인이 처음 엮은 시집이다. ‘옆자리에 한 여자/화장기 없는 활짝한 얼굴/금방이라도 넘칠 듯한 눈물이/젖은 행주처럼 축축해져 있다/…/시아가 일그러진 틈새로/열은 안개 바람/그네를 타고 배회하다/독백을 마시며 슬며시 빠져나간다」(『그만큼』 중) 화자가 있고 대상과 배경이 있고 상황을 갖춘, 시는 길이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임을 읽는다. 또한 ‘문면에 드러나지 않은 침묵까지도 능숙하게 경영할 때 시다운 시가 탄생’한다는 변종환 시인의 말에도 공감이 된다. 내 안에 문신처럼 잠복해 있는 생각들을 붙잡고 행간 사이로 ‘지독한 말의 배설물을 굴리며/삶의 각도에 따라 굽이진 사연 안은 채/숨 가쁘게 휘감아 드는 적막감」(『불면』 중)과 지난한 시간을 보낸 흥욕처럼 붉은 열정들이다.



다람쥐와 도토리 김종목 / 시선사

김종목 동시인은 살아 있는 동시가 좋은 동시라고 이야기한다. “살아서 미소를 띠 때, 우리는 즐겨 읽어보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두고두고 기억하는 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시인의 시를 읽으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작품이 꽤 있다. ‘형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나는 사탕 두 개를 내밀었다./-외할머니가 사 주셨어. 형 거야./-고맙다. 너도 하나 먹어라.//나는 또 받아먹었다./9대 1로 나누어 먹었다.」(『9대 1』 중) 달콤함의 대명사 사탕이니 화자의 마음이 십분 이해가 되고, ‘사람짝 사릿대 위에서/밀잠자리 두 팔 벌리고/몸을 말린다.//사릿대/간질간질하겠다./밀잠자리 고 가느다란 발가락//꿈지락꿈지락/간지럽겠다.」(『간지럽겠다』 중)은 상상만으로도 유쾌해져서 ‘좋은 동시를 읽으면 마음이 상쾌해’짐을 알게 한다.



물닭의 민우 여운철 / 세종출판사

시는 일상의 언어를 허물고, 상투적인 것들에 왜라고 냅다 질문을 던진다. 때로 인간 실존에 대해, 불투명한 삶에 대해서도 질문을 서슴지 않는다. 함축된 시어 사이를 거닐다 보면 ‘옹거니’하고 무릎을 칠 일도 생기지만 미로 속을 걷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직접 써보면 어떨까. ‘노동의 아침을 서두르는 사람들/앉아서 가든/서서 가든/제각각 상념의 표정들//하늘과 맞닿아 날고 있는 새/눈 오는 길을 아는지/희색빛 의상을 걸치고 날아//나는 지극히 겸소함/겨울의 포문이 열리고 있는/남루한 유리창을 닦는다.」(『새해 첫 수요일 출근길』 중)처럼. 시인은 30여 년 공직생활을 하며 출근길 틈틈이 시를 썼고 생애 첫 시집을 펴냈다. 경전철 너머로 보이는 풍경과 직장인으로서의 고단함 등 내외적 삶의 무늬를 조심스레 선보였다.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장	122.57㎡
4층 전시장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예술아카데미

접수기간 : 분기 시작 1달전~개강일
 접수방법 : 전화, 방문 접수 (부산예술회관 302호)
 * 카카오톡 채널 접수 가능 '부산예술회관 아카데미' 검색
 계좌이체 : 부산은행 310-01-001290-2
 * 수강료 납부 후 꼭 연락 바랍니다.

2분기 (2023년 4~6월)

순번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요일 및 시간 / 장소	수강료
1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70명	화) 13:30-15:30 <1층 공연장>	* 3개월 3만원
2	한국무용교실	20명	목) 14:00-15:50(심화반)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3		20명	목) 16:00-17:50(기초반)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4	아랑고고장구	20명	수) 14:00-15:30 <2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5	라인댄스(오전반)	20명	화,목) 11: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6	댄스 스포츠	20명	화,목) 10:00-10: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7	가곡교실	20명	화) 10:00-12:00 <2층 연습실>	* 3개월 15만원
8	너도나도 방송댄스	20명	월,수) 17:00-17:50 <미정>	3개월 15만원
9	통기타 반주법과 연주	20명	수) 16:00-18:00 <미정>	3개월 15만원
10	1:1 프리미엄 피아노클래스	20명	월) 11:00-13:00 <미정>	* 3개월 36만원
11	(신규) 스마트폰 사진교실	10명	목) 10:00-11:50 <4층 회의실>	* 3개월 15만원
12	(신규)웰빙댄스	20명	월) 10:00-11:3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 개강완료 — 신규강좌

※ 수강료 외 재료비, 반주, 교재비 별도
 ※ 일부강좌 수시접수 가능

청년아카데미

★ 개강 완료
 접수방법 : 전화, 방문 접수 (부산예술회관 302호)
 * 카카오톡 채널 접수 가능 '부산예술회관 아카데미' 검색

상반기 (2023년 1~6월)

순번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요일 및 시간 / 장소	수강료
1	청년뮤지컬 클래스, 뮤랑프리	20명	토)13:00~17:00 <4층 연습실>	1개월 5만원 (1~6월 과정)

마감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 성 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손 병 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하는 광고주가 되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변화하는 부산은행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처럼
변함없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정가 5,000원



9 771976 974008

ISSN 1976-9741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